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조사보고 제36집

1944~1950  
**국외기관 소장 연합군, 미군 생산 인천 자료**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조사보고 제36집

1944~1950 국외기관 소장 연합군, 미군 생산 인천 자료

인천광역시립박물관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인천광역시립박물관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조사보고 제36집

1944~1950

**국외 기관 소장**

**연합군, 미군 생산 인천 자료**



인천광역시립박물관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목차

I. 조사 개요	
조사 개요	6
조사 대상 및 방법	8
II. 자료 소개	
Part 1. 광복 이전부터 6.25전쟁 발발 이전 1944년~1950년 5월	14
Part 2. 6.25전쟁 발발~인천상륙작전 1950년 6월~1950년 9월 15일	72
III. 논고	124
IV. 보고서 수록 자료 목록	152



## I. 조사 개요

## 조사 개요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은 2012년부터 인천 지역의 근현대 생활문화를 비롯한 지역사(地域史) 연구를 위한 학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3년도 학술조사는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광복 전후, 6.25전쟁의 발발과 인천상륙작전까지의 격동기 인천을 국외기관이 소장 중인 기록물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천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모씨네 사회적협동조합 아카이브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해당 시기의 자료를 선별·조사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기록물(記錄物)은 ‘기록된 책, 사진, 그림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sup>1</sup>이다. 이때 기록(記錄)은 한 사회가 남긴 경험이나 지식에 관한 유형의 증거를 뜻한다. 현대 기록관리학의 이론적 토대를 만들었던 쉘렌버그는 1950년대 기록에 대해 “개인이나 기업 또는 정부기관에 의해 일상적인 업무과정에서 생산되는 것”이며, “기능·정책·결정·절차·수행 등 기타 행위들의 증거”이자 “그 안에 포함된 자료의

정보적 가치” 로 인해 “보존되거나 보존하게 된 모든 서적·서류·지도·사진이나 기타 형태의 문서자료”라 정의하기도 하였다. 기록을 바탕으로 생산되는 기록물은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생산 및 활용되는 가치를 비롯해 본래부터 의도했던 목적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쓰임새로 이용되는 추가적인 가치를 보유한다.<sup>2</sup> 기록물이 ‘추가적인 가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역사 연구가 가능해진다. 올해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이 시도하는 학술조사도 이러한 기록물의 성격을 활용한 것이다.

기록물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재까지도 생산되고, 보존, 활용되고 있으며, 기록물을 보관하는 곳을 일반적으로 기록관(記錄館)이라 일컫는다. 기록관은 한 조직의 내부 문서를 일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선별, 보관하여 공개함으로써 조직의 역사적 성격을 밝히기 위한 소재를 제공하는 곳이다.<sup>3</sup> 기록관에서는 기록물 보관 및 보존 업무를 하면서 기록물 수집 및 공개 기능도 갖고 있다. 국내의 경우 대표적으로 국가기록원 등이 해당된다. 국가기록원에서

는 근현대 시기에 생산된 우리나라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고, 이를 역사 연구에 활용할 수 있어 많은 연구자들이 도움을 얻는다.

국외에도 국가기록관과 같이 근현대 시기 생산된 한국 관련 자료를 소장한 기관들이 여럿 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국립공문서관2관(Archives II), 일본 국립공문서관, 유엔 문서기록관리부(UN 아카이브) 등이 이에 속한다. 한편, 국내에는 앞서 언급한 국외 기관 소장의 한국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곳도 있다. 전자자료관을 통해 수집한 기록물을 서비스 중인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국외의 기록물을 수집하여 공개 중인 국내 기관은 한국과 관련된 기록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수집, 공개를 하고 있기에 인천 역사를 비롯한 지역사(地域史) 연구자는 본인의 연구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자료(기록물)를 선별하여 확인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에 2023년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서는 방대한 국

외 생산 국내 관련 기록물을 시기와 주제를 한정하여 학술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에 조사한 기록물은 인천과 관련된 기록물 중 일부에 불과하지만, 조사 결과를 시금석으로 하여 관련 연구 등이 진전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이들 기록물은 인천의 고유한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sup>1</sup> 표준국어대사전

<sup>2</sup> 국가기록원, 『기록학 개론』, 국가기록원, 2015, pp.6~13.

<sup>3</sup> 이시카와 데쓰야 외,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의 연계·협력』, 한울 아카데미, 2021, p.18.

## 조사 대상 및 방법

이번 학술조사에서는 인천 관련 기록물을 소장 중인 국외기관 중 일부를 선정하여 조사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수의 국외기관들을 조사하는 것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국립공문서관 2관(Archives II, 이하 아카이브 2)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아카이브 2에는 미국 등에서 생산된 다수의 기록물이 보관되어 있다. 박물관에서는 광복 전후의 인천을 살펴본다는 구체적인 주제를 선정하였고, 시기를 한정하여 1944년에서 1950년까지 생산된 기록물에 집중하였다. 또한 생산 주체 역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연합군과 미군으로 한정하였다. 해당 생산 시기와 생산 주체가 학술조사 주제를 풀어내는 것에 있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술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사진과 지도 등은 미 육·해·공군의 정보기관에서 수집한 것이다. 이 기록물들이 소장된 아카이브 2에

는 1900년부터 2000년대까지의 인천 관련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분야 뿐 아니라 조선총독부와 일본의 식민지 국가들에서 노획 또는 수집된 자료를 보관 중이다. 아카이브 2에는 자료를 문서군(Record Group) 또는 컬렉션 - 시리즈(Series) - 상자(Box) - 폴더(Folder) - 건(File, Item)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곳의 문서군은 000부터 990번이며 군과 민간, 기중 기록물로 다시 분류되어 있고, 하나의 문서군에는 1개부터 2,500개 이상의 시리즈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고서를 통해 소개되는 기록물들은 [RG 111(육군통신대사령관실 기록)], [RG 226(전략첩보국 기록)], [RG 319(육군참모부 기록)], [RG 342(미공군사령부의 작전 및 조직 기록)], [RG 554(극동사령부, 연합군최고사령부, 유엔군사령부 기록)], [RG 80(미 해군부 기록)] 등에 수록된 것이다.

한편 UN 아카이브는 아카이브 2의 문서군과 동일한 풍(Fonds) - 시리즈(Series) - 상자(Box) - 폴더(Folder) - 건(File, Item) 순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보고서에 수

록되는 UN 아카이브 사진은 유엔재건단(풍)의 사진 기록(시리즈)에 포함된 것이다.

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박물관에서는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기 앞서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기록물을 수집해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관련 기록물을 수록해 발간한 인쇄물, 박물관과 공동 조사를 진행한 모씨네 사회적협동조합이 보유한 자료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진행했다. 사전 조사 결과 「RG 80」, 「RG 77(미 국방정보국 기록)」, 「RG 554」 등에서 인천 관련 기록물을 확인하였다. 이후 본 조사를 통해 여러 기록군에 걸쳐 사진, 지도, 문서 등을 조사하였다.

사전 조사 및 본 조사로 확인한 기록물을 시기 순으로 배열하였고, 광복 이전부터 6.25 전쟁 발발 이전(1944년~1950년 5월)과 6.25 전쟁 발발과 인천상륙작전(1950년 6월~1950년 9월)으로 다시 구분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술조사 보고서를 제작하였다. 이렇게 시기를 구분한 것은 6.25전쟁 발발이 조사를 위해 한정된 시기를 나눌 수 있는

중요 사건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학술조사 보고서는 구분한 기록물들을 바탕으로 제작하였다. 보고서는 크게 [조사 개요], [자료 소개], [논고], [보고서 수록 자료 목록]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 [자료 소개]에서는 앞서 구분한 기록물 내용 중 사진과 지도 위주로 편집한 이미지와 해당 기록물에 대한 설명을 캡션으로 달아 함께 수록하였다.

[논고]에서는 당시 인천을 둘러싼 연합군과 미군의 활동에 대한 내용 및 그들이 생산한 기록물에 대한 내용,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의 기록물 수집 관련 내용 등을 논하였다. [보고서 수록 자료 목록]에서는 보고서에 실린 기록물들을 찾기 용이하게 전체 이미지와 기록물에 수록된 영문 문장, 속한 기록군 등을 정리하여 표로 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 개요를 비롯한 본 글에서 언급한 ‘기록물’이라는 용어는 역사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자료’로 치환하여 사용하였다.

<b>조사대상</b>	국외기관 소장 연합군 · 미군 생산 인천 관련 자료(1944~1950년)
<b>조사기간</b>	2023년 1월 ~ 2023년 12월
<b>조사·집필<sup>1</sup></b>	
총괄	손장원(인천광역시립박물관장)
조사총괄	신은미(인천광역시립박물관 유물관리부장)
기획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유물관리부 모씨네 사회적협동조합 아카이브 연구소
원고	진갑생(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박민주(인천광역시립박물관 유물관리부 학예연구사)
자료조사 및 편집	박민주(인천광역시립박물관 유물관리부 학예연구사) 서은미(모씨네 사회적협동조합 아키비스트) 장미란(모씨네 사회적협동조합 브랜드디자이너) 최규리(인천광역시립박물관 유물관리부 학예연구원)
자료 제공	모씨네 사회적협동조합 아카이브 연구소

<sup>**1**</sup> 조사·집필진은 발간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일러두기>

- 본 보고서는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서 2023년 진행한 <국외기관 소장 연합군·미군 생산 인천 자료 조사(1944~1950)>의 결과물이다.
- 본 보고서에 수록된 외부 집필위원의 원고와 작업물은 박물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다.
- 본 보고서에 수록된 자료에 관한 문의는 인천광역시립박물관 및 모씨네 사회적협동조합 아카이브 연구소로 하면 된다.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원고와 작업물 등의 저작물 일부 또는 전체를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복사,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Ⅱ. 자료 소개

### Part. 1

광복 이전부터 6.25전쟁 발발 이전  
1944년 ~ 1950년 5월

## 광복 이전부터 6.25전쟁 발발 이전 1944년 ~ 1950년 5월

### 전갑생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1부는 해방 직전 미군은 인천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언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하였는가. 왜, 사진의 촬영주체가 인천을 주목하게 되었는가와 같은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거미줄처럼 얽힌 연합군 조직들은 인천의 항공사진이나 시설물들을 촬영해 작전에 활용했다. 연합군은 2차 세계대전 말로 가면서 필리핀을 재점령하고 1945년 4월부터 오키나와 전투를 치르고 일본 본토를 공격했다. 소련군은 1945년 8월 9일부터 만주에서 조선으로 진격하고 있었고 13일 청진항으로 상륙했다. 연합군은 일본 본토와 인천, 제주 등 주요 항구와 시설들을 폭격하기 위해 예비 목표지점들을 조사하고 예상 상륙지점까지 파악했다. 이러한 연합군의 작전에는 기존 미국이나 영국 선교사들이 보낸 기본정보 외에 지리와 건물 등 정확한 정보가 필요했다.

이에 우리는 사진촬영의 주체와 역사의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 1942년 4월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에서 미 남서태평양사령부(South West Pacific Area, SWPA)와 연

합군최고사령부(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SCAP) 및 극동사령부(Far East Command, FEC) 소속의 정보참모부(G-2) 군사정보국(Military Intelligence Division, MID)이 설립되었다. 극동사령부는 극동공군(U.S. Air Far East, USAFE)과 전략폭격조사단(Strategic Bombing Survey) 등에서 조사한 각종 정보들을 수합해 작전참모(G-3)나 병참참모부(G-4)에 전달했다. 군사정보국은 1945년 4월부터 극동공군을 통해 정찰항공사진, 폭격목표물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시설물 뿐 아니라, 1945년 9월 작전 블랙리스트(일본과 조선 점령 작전)에 이르는 각종 정보를 취합하고 배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 외에도 미 전쟁부 하부조직인 합동육군-해군정보연구(Joint Army-Navy Intelligence Study, JANIS)는 전쟁부 정보목표(War Department Intelligence Targets, WDIT)와 전쟁구역의 각 사령부에서 요청한 국가의 상세한 지역들을 육해공의 주요 시설물 현황과 상륙 예상지점까지 파악해 책자형태로 발간했다. 이러한 다양한 정보를 생산한

곳은 전쟁부 육군부 정보참모부(G-2)와 작전참모부(G-3), 전략첩보국(OSS), 해군부 해군정보국(ONI) 영국군 정보부 등이다. 각 정보조직들은 조선의 군사기지, 비행장, 군수공장, 도로 및 철도까지 상세하게 조사했으며 지도, 항공사진, 건물 사진 뿐 아니라 인구 통계 자료까지 수집했다. 이 군사, 경제, 정치 정보들은 경성 거주 미국 선교사나 조선인 독립운동가들로부터 수집된 것이었다. 경제 자료들은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자료들을 재인용한 경우가 많았다.

1부의 주요 사진들은 1944~1945년 사이 미 전쟁부 육군부 산하 정보 공군참모실에서 간행한 <항공 목표 폴더 조선구역(Air Targets Folder Korea)>과 1945년 3월 20일 20폭격사령부 사진정보국(Photo Intelligence Detachment Headquarters, XX Bomber Command)의 항공사진과 시설물, 1944년 468폭격단에서 정찰한 인천항만 일대 항공사진, 1945년 8월과 9월 사이 미 태평양사령부 21수송전단 소속 해병항공단에서 촬영한 항공사진 등이다. 열거한 여

러 조직들은 미 육군부 산하이며, 이들이 파악한 정보가 일본과 조선 점령작전에 활용되었다. 항공 목표 폴더 조선구역과 JANIS에서 발간한 자료에는 인천, 서울, 부산, 대구, 평양 등 주요 도시와 주요 항구도시의 항만, 철도, 도로 뿐 아니라 군사시설과 군수공장 등의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20폭격전단에서 지정한 인천의 <항공 목표물>은 목표물 53번 기상대(Meteorological Observatory), 54번 시바우라 전기회사(Shibaura Electric Co), 55번 인천육군조병창(Jinsen Arsenal), 56번 인천육군조병창 제1공장(Jinsen Arsenal, No. 1 Factory) 등이었다.<sup>1</sup>

또한 20폭격사령부 사진정보국 자료는 모두 항공사진이다. 이 사진정보국의 항공사진은 1944년 468폭격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인천항만과 부평 육군조병창의 건물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인천항은 1930년대부터 중공업 공장이 건설되면서 자동차, 선박, 잠수함 등 조선기계제작소를 비롯한 다양한 공장들이 밀집해 있었다. 항공사진에서

는 인천항의 조수독과 월미도 외에도 시가지의 중요한 건물과 도로, 역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인천 항 공사진은 1944년부터 1945년까지 인천항 주변이다.

여러 사진은 인천의 지명 표기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전쟁기 1942년 9월 25일 캐나다 왕립공군이 미 육군 군사정보국에 전달한 <조선에서의 정보>라는 문서에서 인천을 ‘진센(Jinsen)’이라고 적고, 팔호에 ‘제물포(Chemulpo)’를 병기하는데 인천과 제물포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방직전인 1945년 4월과 7월 사이 미군은 캐나다군과 동일하게 지명을 그대로 표기했다.

미 합동참모부는 1945년 6월 일본과 주요 식민지들을 점령하고자 <작전 블랙리스트(Operation Blacklist)>라는 작전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8월 11일 연합군최고사령부에 통보되면서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다. 오키나와와 필리핀 등지에서 활동한 미군부대들은 조선을 점령하고자 <블랙리스트>의 세부작전인 베이커 시리즈를 담당

했다. 24군단 소속의 사단들은 1945년 8월 15일 오키나와에서 벗어난 3단계의 조선 점령 작전을 마련했다. 1단계(Baker-Forty)는 해군과의 합동작전을 통해 조선반도의 인천-서울 지역을 점령하고, 2단계(Baker-Forty One) 지상 및 해상작전을 통해 부산을 점령하고, 3단계(Baker-Forty Two) 후속 지상 작전과 해상 작전을 통해 군산-전주 지구를 점령하는 것이었다. 8월 26일 작전 개시 명령에 따라 24군단의 선발대가 김포공항을 거쳐 구 조선총독부로 들어갔다. 9월 6일 오전 8시 30분 미군 7보병사단과 수송단 등이 소월미도를 지나 인천항으로 들어갔는데,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과 흡사한 경로였다. 점령군은 월미도 인근에서 소형 상륙주정(LST) 등을 이용해 인천항에 상륙했다.

사진을 촬영한 주체는 미 극동육군의 24군단 소속 7보병사단과 함께 이동한 24군단의 직속 123통신사진파견대(123rd signal photographic detachment)이다. 이 부대는 2차 세계대전기 오키나와 전투를 거친 71통신대대 소속이

며, 조선 점령 작전에 특별부대로 재구성되었다. 이 부대는 사진과 영상병 2인 1조로 조선 내에서 군사활동, 훈련, 각종 행사, 주요 인물 등을 다양하게 촬영했다.

주요 사진들을 보면 123사진파견대는 1945년 9월 6일 오전 8시 30분 인천항으로 이동하는 장면과 마중 나온 선발대, 인천 사람들과 건물 등을 촬영했다. 9월 8일 오후 4시 인천부청(지금의 중구청)에서 미군과 일본군의 항복 예비회담 개최와 1948년 철수한 미군들까지 다양한 피사체들을 촬영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 사진들에는 인천지역의 풍경과 인천항, 부평 캠프 애스컴 내 한국군 의료부대의 활동까지 다양한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시기의 인천 사진들은 상공에서 인천항을 비롯한 부평 육군조병창에 이르는 항공사진, 폭격 예비지점 주요 군수공장과 월미도 일대 창고 사진 등이다.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은 일본군의 인천경비부 점령지 인천이라는 시각에서 사진 등을 생산했다. 그런 점에서 이 사진들은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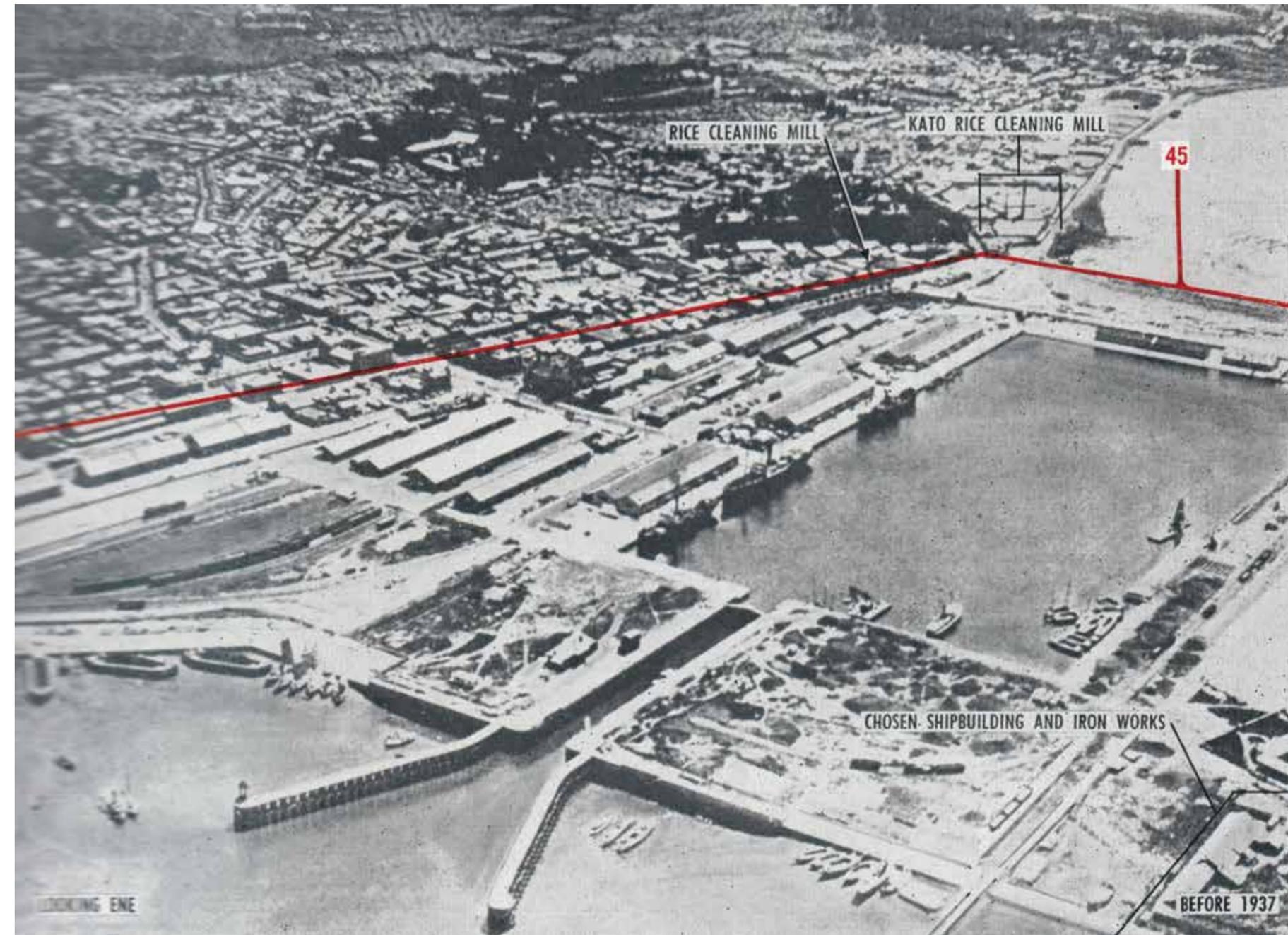
의 시설물을 파악하고 파괴하기 위한 목적이 강한 사진들이었다. 사진은 군사적 목적에서 촬영되었지만 해방 이전 인천항을 중심으로 관공서와 산업체, 도로 및 철로, 염전 등 여러 건물과 경관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인천항 일대를 촬영한 항공 사진들은 해방 이전과 한국전쟁 전후를 비교할 수 있어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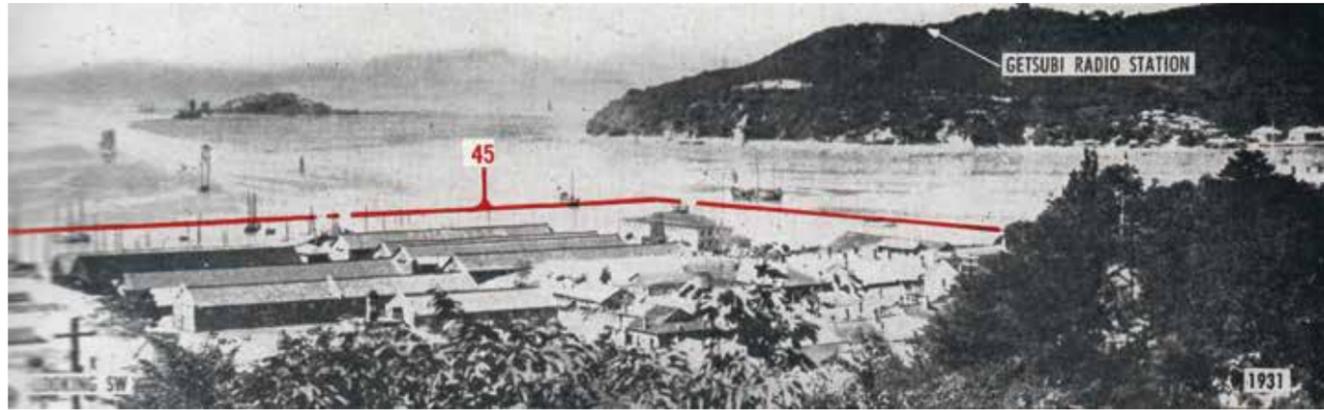
1 RG 92, Classified Geographic File, 1936-52, A1 1892F, Box 10, 350.09 (Secret) Japanese Intelligence Targets in Far East (Korea), Archives II.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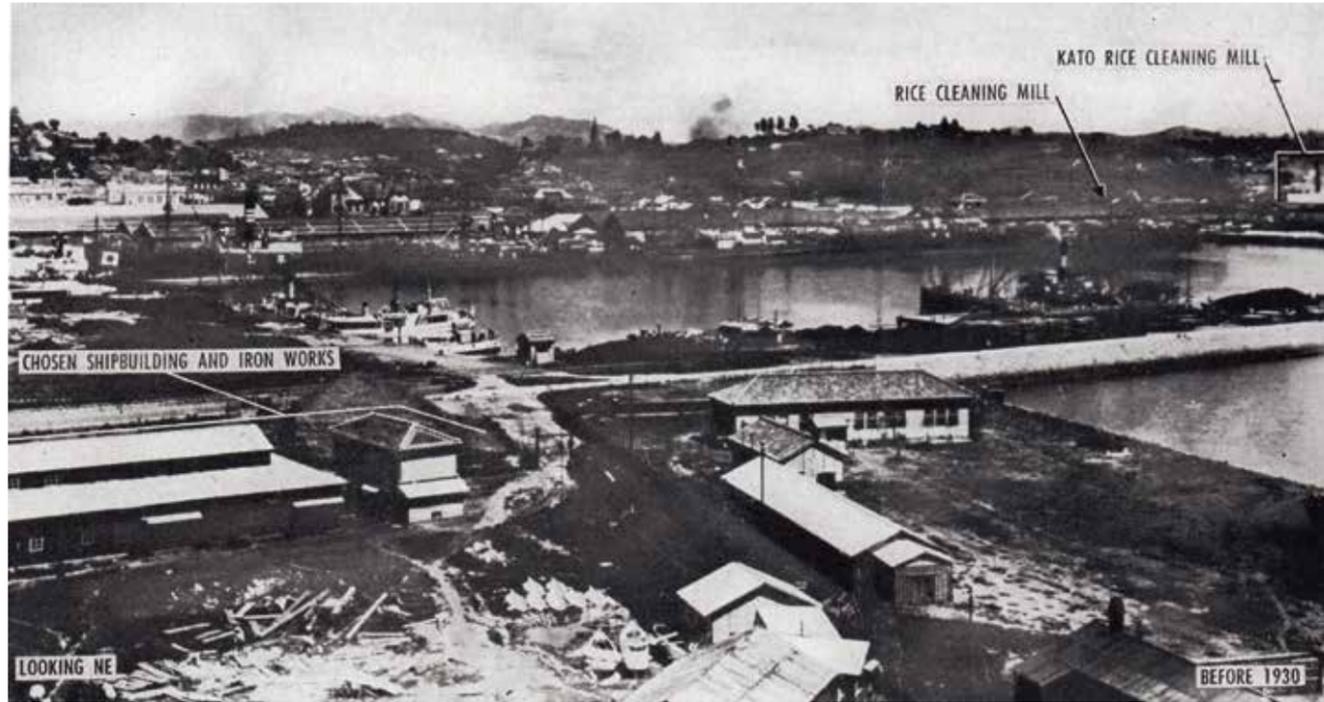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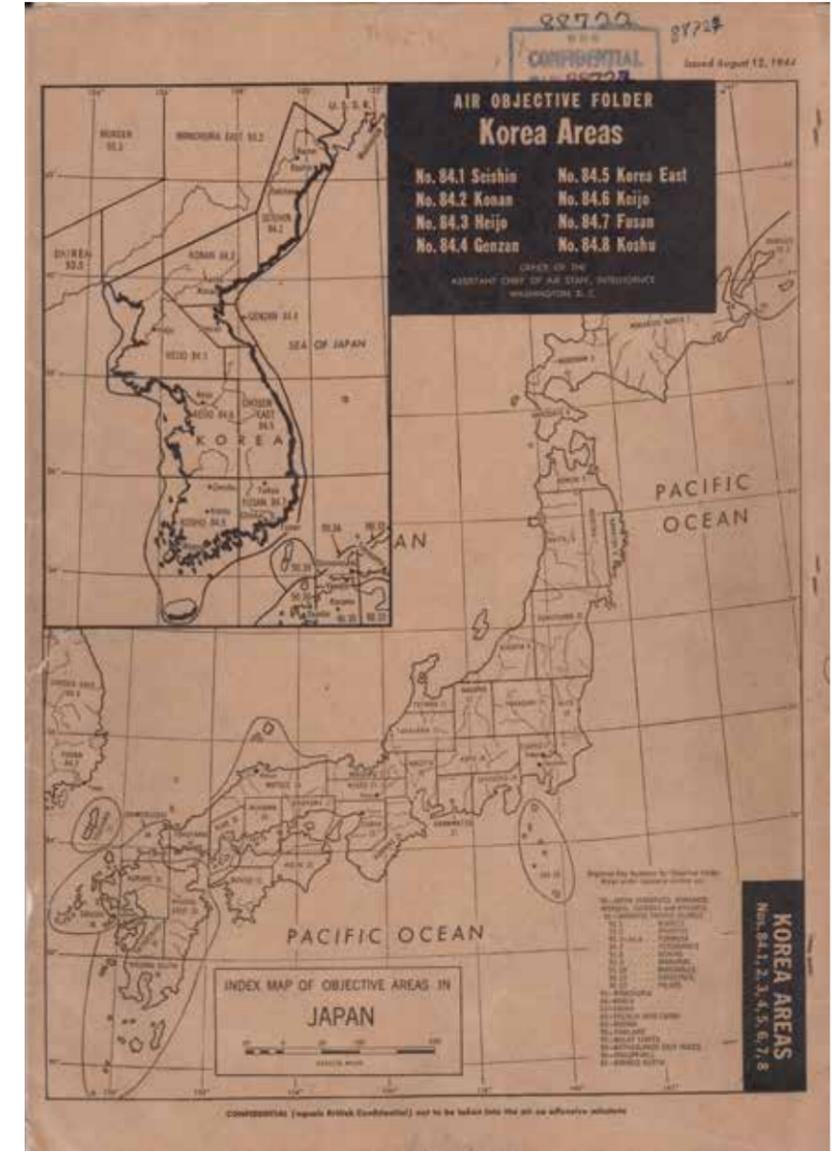
이 사진들은 1944년 8월 12일 미국 공군참모장관실 정보참모부 군사정보국과 영국군에서 제작한 『공중목표물 폴더 조선구역 번호 84.1, 2, 3, 4, 5, 6, 7, 8(Air Objective Folder Korea Areas, Nos. 84.1, 2, 3, 4, 5, 6, 7, 8)』의 일부이다. 자료에서는 인천을 45번째 폭격 목표물이라고 표기하고 주요 건물들을 열거하고 있다. 목표물 45번은 경성-인천지방이며 인천의 경우 항구와 조수독 일대 건물들을 포함하고 있다. 개별 사진에 대해 알아보면, 사진 1번은 '45' 적색선에 정미소(Rice Cleaning Mill), 카토 정미소(KATO Rice Cleaning Mill)와 일본제분회사(Nippon Flour Mill), 월미도에 유류저장창고(Oil Storage Warehouses), 중계소 등을 표기하고 있다. 사진 2번에 '45' 적색으로 표기된 곳은 정미소, 카토 정미소, 조선 조선과 철공소(Chisen Shipbuilding and Iron Works) 등이다. 조선과 철공소는 1937년 이전에 촬영된 것이다. 사진 3은 1931년 촬영한 남서쪽 인천항과 월미도 중계소 등이다. 사진 4는 다른 방향에서 1930년에 촬영된 카토 정미소와 조선&철공소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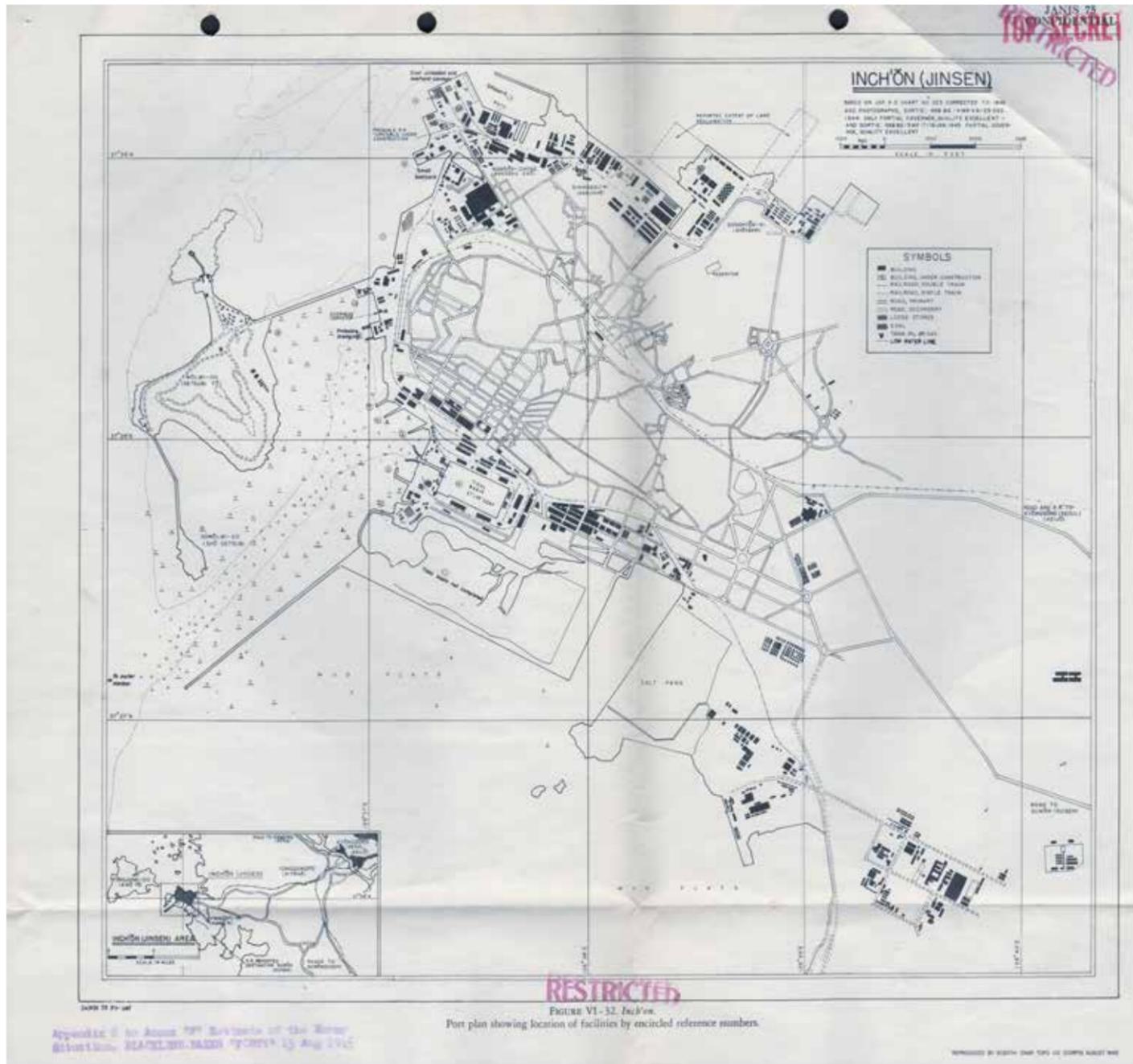
4

1~4

조선에 대한 폭격 실시 시 목표물 45번으로 설정한 인천항과 도크에 대한 자료이다. 인천항을 여러 방향에서 촬영한 사진에 붉은 색으로 해당 부분을 표시했다. 연합군이 광복 이전 인천의 중요 시설로 인천항을 선정한 것을 알 수 있다. (1944.8.12.)



<참고> 『공중목표물 폴더 조선구역 번호 84.1, 2, 3, 4, 5, 6, 7, 8』의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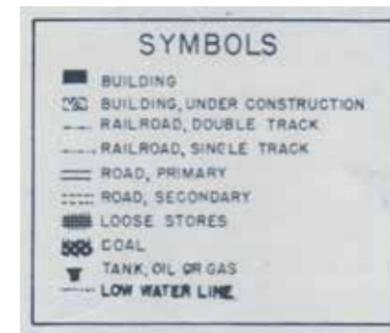


5

제니스 문서(JANIS 75 P3-267)에 포함된 인천 지도이다. 인천항을 비롯한 인천의 각종 시설에 참조 번호를 붙였다. 제작 당시의 주요 도로와 지명을 확인할 수 있다. (1944.)

<지도에 표시된 영문>

- ① Tidal basin not completed
- ② 표기 없음
- ③ 표기 없음
- ④ TIDAL BASIN 27'-33' DEEP
- ⑤ 표기 없음
- ⑥ 표기 없음
- ⑦ 표기 없음
- ⑧ 표기 없음
- ⑨ 표기 없음
- ⑩ 표기 없음
- ⑪ 표기 없음
- ⑫ 표기 없음
- ⑬ 표기 없음
- ⑭ Shipyard
- ⑮ 표기 없음



이 지도는 미 공군 468폭격전단이 1944년 12월 25일, 1945년 1월 17-18일 두 차례에 걸쳐 1942년에 작성된 일본 지도를 항공사진을 토대로 수정해 제작한 것이다. 지도의 기호 범례에는 검정 사각으로 건물, 안에 건설된 건물, 왕복 철로, 단선 철로, 주도로와 보조도로, 염전, 광산, 유류 탱크, 저수지 등을 표시하고 있다.

지도를 제작한 곳은 1945년 4월 합동정보위원회(Joint Intelligence Committee)의 하부기관인 합동육군-해군정보연구출판위원회(Joint Army-Navy Intelligence Study Publishing Board·JANISPB)이다. 출판위원회는 1943년 5월부터 미국 육군부 정보참모부(G-2), 미국 해군정보국(Office of Naval Intelligence·ONI), 미국 전략첩보국(OSS)의 합동으로 독일과 일본을 비롯한 식민지에 대한 지리정보를 취합해 책자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JANISPB는 1944년 1월이 되면 책자에 극동의 일본 식민지 국가에 대한 지리정보 뿐 아니라 정치, 경제, 도시, 해군 기지 및 공군기지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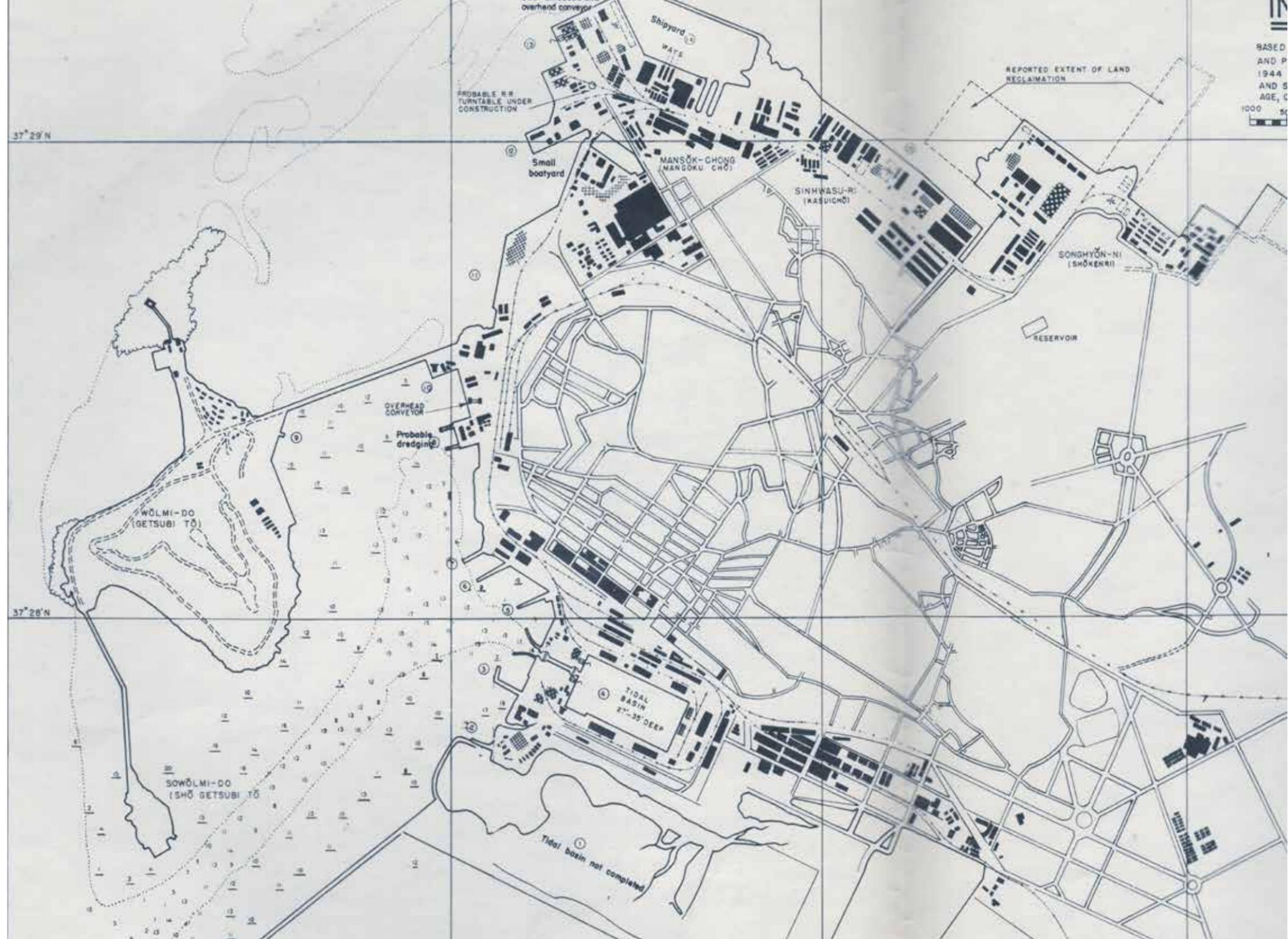
이 결정에 따라 합동육군-해군정보연구(Joint Army-Navy Intelligence Study·JANIS)는 G-2와 OSS의 축적된 정보를 취합해 국가별 시리즈인 JANIS 75 시리즈 책자를 생산하게 되었다. 이 시리즈는 1장 『1945년 4월 요약(Brief, April 1945)』부터 15장 『가제트와 지도 평가(Gazetteer and Map Appraisal, April 1945)』까지 총 15권으로 생산되었으며, 별도로 『조선의 JANIS, 1945년 4월: 대마도와

제주(JANIS of Korea, April 1945 : including Tsumima & Quelpart)』(1945.4)가 출판되었다.

본 보고서의 인천 지도는 『JANIS 75 제6장 조선의 합동육군-해군정보연구, 항민시설, 1945년 4월(JANIS 75 Chapter VI, Joint Army-Navy Intelligence Study of Korea, Port Facilities, April 1945)』VI-39쪽과 『JANIS 75 제8장 한국의 합동 육군-해군정보연구, 도시와 시골, 1945년 4월(JANIS 75 Chapter VIII, Joint Army-Navy Intelligence Study of Korea, Cities and Towns, April 1945)』VIII-34쪽에 원정보가 첨부되어 있다.

이 지도의 명칭은 JANIS 75 P3-267이고 인천과 항구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지도 속 동그라미에 삽입된 숫자는 항만의 시설 명칭이다. ① 조수 독(완공되지 못했다고 표기) ② 남쪽 내면 램프 부두, ③ L 모양의 부두, ④ 조수 정박지, ⑤ 북쪽 내면 램프부두, ⑥ 제2세관 램프부두, ⑦ 제1세관 램프부두, ⑧ 쌍둥이 부두(신규 시설, 월미도 남쪽 내항의 서안 도로에 위치), ⑨ 갑문(월미도 남·북쪽 해안 부두), ⑩ 유류 저장시설(월미도 동쪽 끝의 뚝길), ⑪ 옥외 저장시설 ⑫ 조선소(남쪽), ⑬ 철도용 석탄부두, ⑭ 조선소(신규), ⑮ 도쿄시바우라전기회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도는 JANIS에서 제작되었지만 G-2, ONI, OSS 등의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정보를 압축한 것이다.



5-1

22페이지 지도의 세부 사진



6-1

6 제니스 문서(JANIS 75 P3-267)에 포함된 인천항 사진이다. 인천에 대한 이해를 위해 첨부한 사진으로 생각된다. 1935년 이전에 촬영된 인천항 사진(6-1)에 보고서 22페이지 수록 지도에 표시된 참조 번호가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2 사진은 인천항 도크와 부근을 촬영한 사진이다. (1944.)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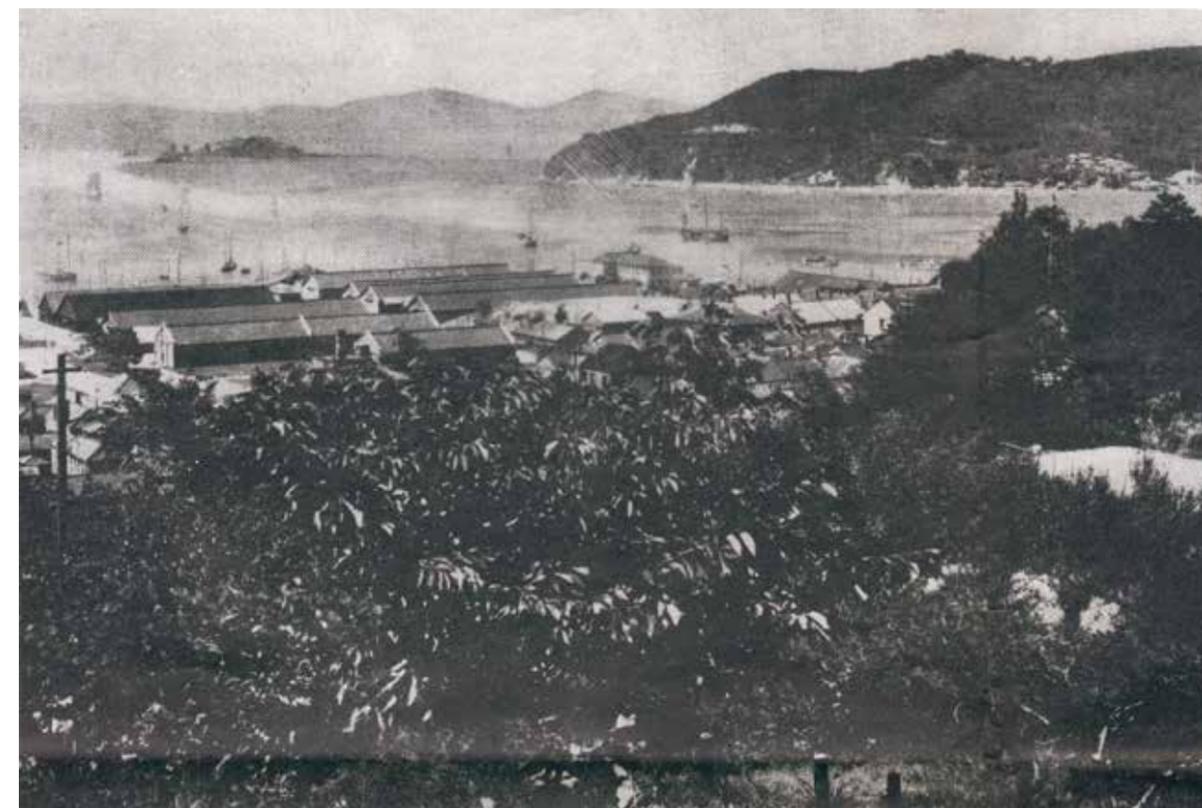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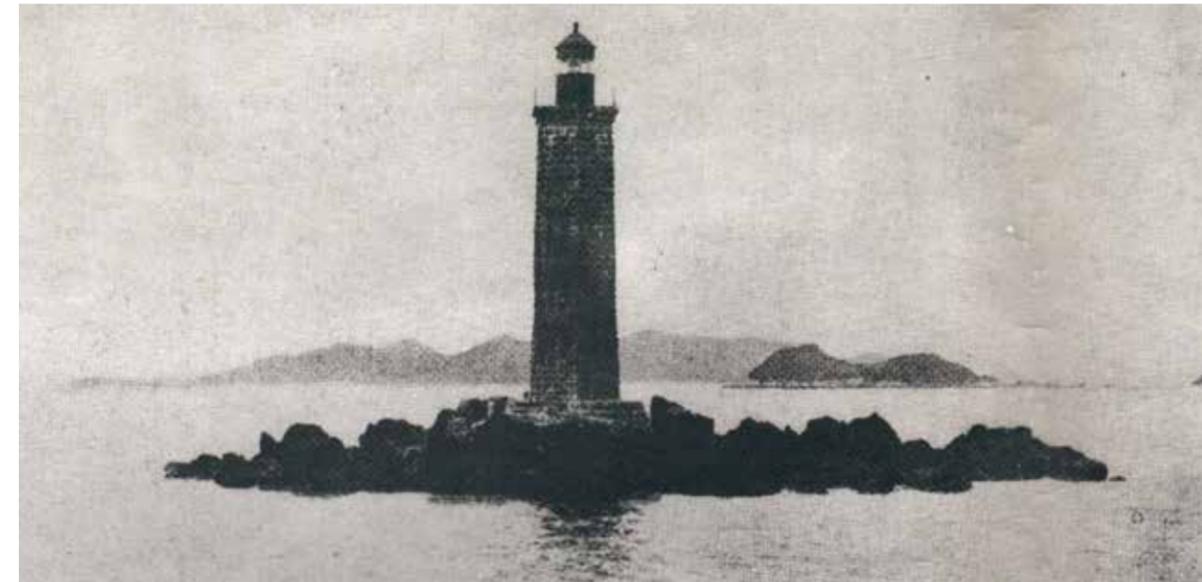
제니스 문서(JANIS 75 P3-267)에 포함된 인천항 사진이다. 보고서 22페이지에 수록된 지도의 참조 번호 4번(인천항 도크)에 대한 내용이 사진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사진은 가장 위에서부터 1930년 이전 촬영한 개선거(開船渠) 사진, 1932년 이전 촬영한 개선거와 갑문 사진, 개선거 북서쪽 사진(촬영 시점이 언급되어 있지 않음)이다. (1944.)

\* 개선거(開船渠)  
조수(潮水)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든 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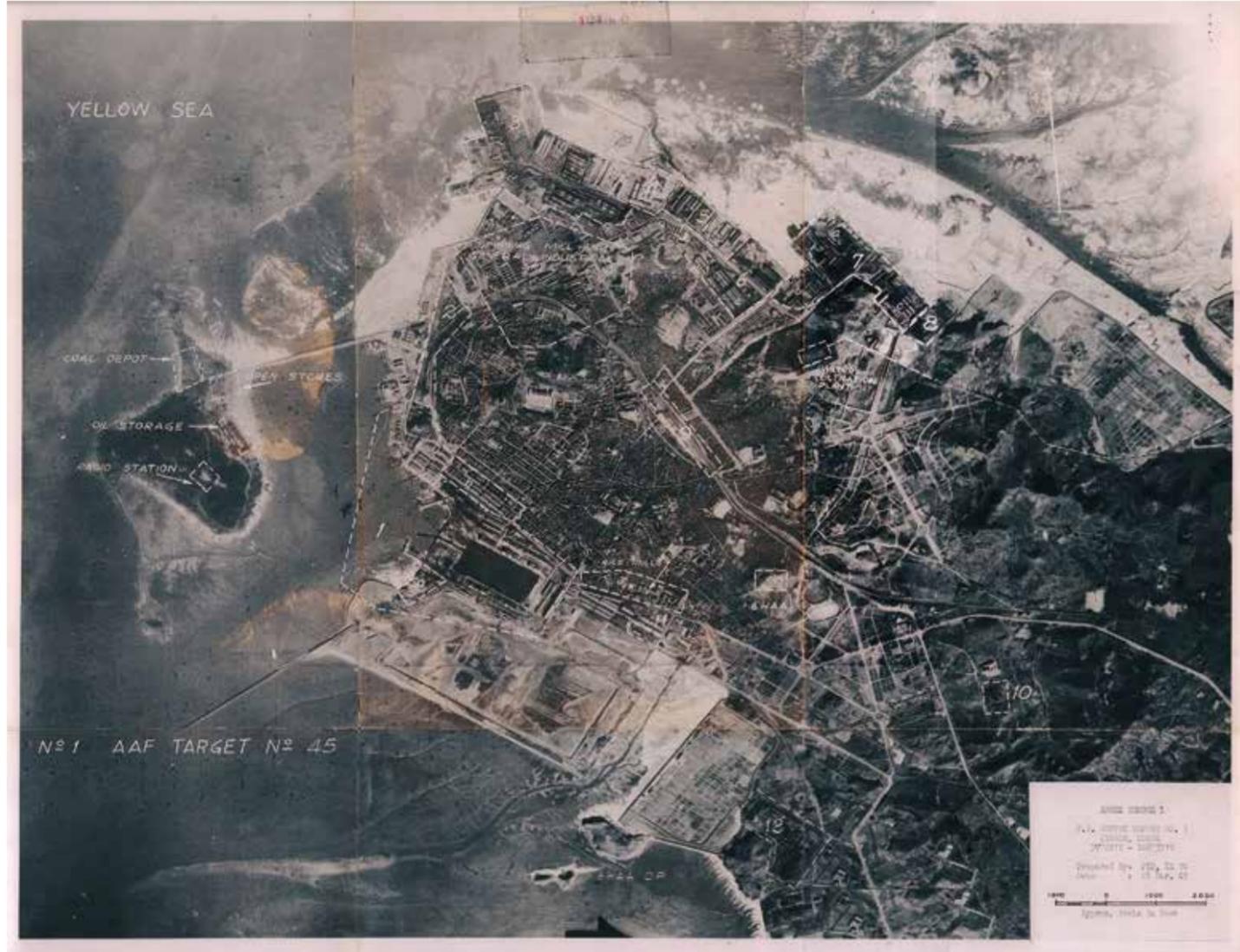


제니스 문서(JANIS 75 P3-267)에 포함된 인천 사진이다. 위 사진은 원 자료 영문 설명에 기재된 위도 경도를 통해 영흥도 부근의 부도 등대로 추정된다. 아랫 사진은 인천 서쪽 해안에서 월미도를 바라보고 촬영한 사진이다. (1944.)

\* 부도  
영흥도 이남에 있는 섬으로 형태가 오리가 떠있는 것 같다고 하여 부도(鳧島)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섬의 위치가 인천항으로 진입하기 위한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1904년 등대가 설치되었다. 현재도 등대가 운영 중이다. 등탑 높이 16m, 지름 3m 규모로 15초에 한번씩 불빛이 반짝인다.



9 사진정보부 본부(PHOTO INTELLIGENCE DETACHMENT HEADQUARTERS)에서 생산한 인천 관련 자료이다. 자료는 텍스트 문서와 항공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텍스트 문서에는 자료의 대상이 되는 지역(인천), 대상 지역 인근에 대한 정보, 좌표, 촬영 방법 등이 나와 있다. 항공사진은 지금의 인천 중, 동구 지역을 촬영한 것이다. 사진에는 당시 인천의 각종 시설들이 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광복 직전의 인천 소재 시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945.3.25.)



<지도에 표시된 영문>

- 1 HARBOR AND TIDAL BASIN
- 2 MAIN RR STATION AND FREIGHT YARDS
- 3 CHOSEN MACHINE CO. AND SHIPBUILDING AREA
- 4 UNIDENTIFIED PLANT AREA
- 5 TOKYO SHIBAURA ELECTRIC CO.
- 6 NIPPON VEHICLE FACTORY
- 7 CHOSEN RIKEN METALS CO.
- 8 SMALL FABRICATING PLANT
- 9 KEIJO LINE RAILWAY PASSENGER STATION
- 10 ELECTRIC TRANSFORMER STATION
- 11 SOUTH RR STATION
- 12 PROBABLE MUNITIONS FACTORY

이 항공사진은 1945년 3월 25일 20폭격전단사령부 사진정보과견대(Photo Intelligence Detachment)에서 촬영한 것인데, 「사진정보조사보고서 5호」에 <조선 인천(Jinsen Korea)> 이라는 제목으로 정찰 결과 보고서에 첨부된 것이다. 첨부된 문서에는 위치(조선의 서해안에서 경성의 서쪽 한강 어귀 근처), 좌표(37°28'N - 126°37'30"E), 사진 정보, 참고자료, 요약, 각 목표물에 대한 상세한 분석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1> 인천항 일대의 항공사진 현황

임무 번호	5FM17	5MF17	4MR49
프린터 번호	LV-46-48	3V29-32	V40-42
날짜	1945.1.18	1945.1.18	1944.12.25
시간	09:24	09:24	00:24
촬영조직	468폭격전단	468폭격전단	468폭격전단
비행고도	8,534m	8,534m	8,382m
초점길이	12피트	24피트	24피트
지도 축적	1:34400	1:17200	1:13500

인천의 항공사진은 1945년 이전 두 번에 걸쳐 촬영되었다. <표1>에서 1944년 12월과 1945년 1월 촬영된 현황을 보면 1944년 12월 촬영 시간은 새벽이었고, 1945년 1월 촬영 시간은 오전 9시 24분이었다.

이 사진의 특징은 인천항만 일대의 공장과 시설들을 폭격하기 위해 실시한 사전 정찰 결과를 문서와 함께 첨부해 이해를 돕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문서에는 첨부된 건물의 위치와 내용에 대해 책에 수록된 1945년 3월 25일의 인천 항공사진과 스테레오 페어스(stereo pairs)를 첨부하고

있다.

항공사진에는 월미도에 있는 저탄장(coal depot), 옥외 저장소(open stores), 유류저장소, 라디오 중계소를 점선 안 목표물로 표시하고 있다. 인천항의 경우 점선으로 표시한 곳이 (1) 항구와 조수 독·조선조선소와 제철소·용산제조회사 지점 공장, (2) 인천철도역과 화물조차장, (3) 조선기계제작소와 시바우라 구역, (4) 미확인 공장 구역, (5) 도쿄 시바우라전기회사, (6) 일본자동차공장, (7) 조선이화학연구소 금속회사, (8) 소규모 부품공장, (9) 경성선 철도승객수송역(현재의 경인선 동인천역으로 추정), (10) 변전소, (11) 남철도역, (12) 군수품공장 등이다.

항공사진과 함께 수록된 스테레오 페어스에는 앞서 언급한 항공사진에서 표시한 주요 목표물들이 별도로 정리되어 있다. 북쪽해안에 위치한 구역인 3, 4, 5, 6, 7번의 항공사진, 조선이화학연구소 금속회사의 항공사진, 북쪽 구역의 조선업(3번)과 일반산업(도료방적, 제재소, 제철소, 맥주회사, 기계공작소 등)의 항공사진 등도 포함되어 있다. 조선 인천(위도 경도로 37.28N - 126.3730 E.라 표시되어 있음) 도시의 동쪽 끝 항공사진, 도시 주요 구간 및 육군항공대(AAF) 대상 45호, 월미도 항공사진 등도 있다.

항공사진과 함께 첨부된 문서에는 월미도와 인천항의 자세한 정보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월미도와 인천항의 12곳의 목표물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기록물은 다음과 같다.

1 RG 263(CIA), Joint Army Navy Studies (JANIS), 1943-1947, A1 47-B, NAID 7260304, Box 9, JANIS 75 Chapter VIII, Joint Army-Navy Intelligence Study of Korea, Cities and Towns, April 1945, Archives II. 이 문서는 RG 407(육군 부관부실), NM3 368B 외에도 RG 38(해군참모총장실), RG 165(전쟁부 일반과 특별참모), RG 313(해군작전기록), RG 319(육군참모부), RG 331(2차 세계대전 연합군 작전 및 점령본부 기록), RG 554(극동사령부·연합군최고사령부·유엔군사령부) 등 여러 문서에서 확인된다.

(1) 「공중목표물 폴더(Air Objective Folder)」 84.6 15-16쪽에 게재된 지도 축적 10,000분의 1지도(미 육군지도국 제작 340482호)

(2) 합동정보수집기관(Joint Intelligence Collecting Agency·JICA)의 「중국과 인도-버마전구(영국군 제공)」바이드 번호 4604.0501호, 시리즈 번호 R-628-D 45-B, JICA/CIB 경제, 뉴델리 1945. 2. 23.

(3) 연합군 동남아시아 사령부(South East Asia Command) 아시아전구 43441/29호, 뉴델리 인도사령부. 「일본의 점령지 일본의 포로수용소, “E” 구역」, 브로다 시트 1호 1945. 3. 1.

(4) 전쟁부(War Department) 일반참모(General Staff) 군사정보부(Military Intelligence Service·MIS), 「조선의 현황」, 1943. 6. 15

(1)의 보고서는 미 육군지도국에서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제작한 지도이다. (2)의 보고서는 영국군에서 제공한 것으로 JICA의 중국-인도-버마(CBI)의 보고서이며, (3)은 S.E.A.C에서 작성한 인천의 산업보고서이며 (4)는 MID에서 작성한 조선의 현황이라는 군사, 정치, 경제 보고서이다. 4건의 보고서는 2차 세계대전기 연합군의 조선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이며 폭격목표물 분석 뿐 아니라 향후 조선의 점령에 사용된 기초자료였다.

4건의 정보 보고서 중 (1)에서 항공사진에 표시된 목표물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 인천은 경성의 항구이고 그 자체로 공업 지역이 되었다고 표현하였다. 보고서 속 주요 대상은 항구와 조수 독 일대인 육군항공(Army Air Force) 45호인

데, 이는 대체로 인공적이고 준설에 의해 개방되어 있다고 적혀있다. 큰 배들은 월미도 섬 밖에 정박하며, 새로운 조수 독(4000×1800피트)과 부두 부지는 부분적으로 건설되었지만 자재 부족으로 인해 건설 자체가 중단되었다고 하고 있다.

인천항만에 대해서는 “지난 10년 동안 반도에 위치한 마을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졌고, 그곳에 위치한 조선업과 금속공업에 대한 광범위한 추가 공사가 이루어져 육지에 채워졌다.”며 “1944년 9월에 마지막으로 발표된 정보 이후 북부 해안가는 급격하게 변화되었고, 광범위한 철도 시설이 추가되었다. 이 북부 해안 지역에는 조선기계제작소와 조선 야드(지도의 3번), 알루미늄 공장(지도의 4번), 도쿄 시바우라 전기(지도의 5번), 일본 자동차 공장(지도의 6번), 조선금속회사(지도의 7번)가 포함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항공사진 상 도시의 남서쪽 외곽에는 목표물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군수품, 페인트, 염료, 대마 그리고 전기 작업을 포함하는 약 7000×3000제곱피트의 직사각형 산업 지역이 있다. 당시 도시 내에 변압소 몇 개가 위치해 있지만, 사진에는 하나만 표시되어 있다. 큰 자동차 공장이 도시로부터 약 동쪽 4마일 (조력부지로부터 5 2/1 마일) 떨어진 곳에 건설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군사적으로 눈에 보이는 방어선은 두 개의 포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6개의 중·대공포이다. 한 포대는 한반도 중심부의 동쪽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고, 다른 한 포대는 중무장된 상태이지만, 총기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 목표물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미군은 월미도와 인천항 일대 군수공장과 무기 배치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했다. 미 24군단의 24군수지원사령부는 1945년 9월 8일 인천의 군수공장과 인천육군조병창 등을 접수하면서 앞의 4건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적의 군사 재산과 귀속재산을 처리할 수 있었다. (출처 : RG 226, NM54 16, Box 1429, CID 124800)



미 해군의 TBM 비행기들이 공중에서 인천을 촬영하고 있다. (1945.9.4.)



미 해군이 공중에서 촬영한 인천 전경이다. (1945.9.8.)



미 해군이 공중에서 촬영한 인천 전경이다. 인천항 도크와 월미도, 그 사이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들이 보인다. (1945.9.8.)



미 해군이 공중에서 촬영한 인천 전경이다. 사진 왼쪽 일제강점기 조선 기계제작소가 제작한 잠수함이 비치된 도크가 보인다. (1945.9.8.)



14 인천 진주 중 미 해군이 공중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바다를 향해하는 배들이 확인된다. (1945.9.8.)



15

인천 진주 중 미 해군이 공중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왼쪽에 인천항 도크가 있다. (1945.9.8.)



1945년 9월 8일 미 24군단 소속 6과 7보병사단을 비롯한 해군전단은 월미도를 거쳐 인천항으로 들어왔다. 이 작전은 일본-조선점령을 위한 <작전 블랙리스트 (Operation Blanklist)>의 조선점령 작전명 베이커-포티 (Baker-Forty)라고 불렸다. 이 작전은 해군과 합동작전을 통해 인천-서울 근교를 점령하고, 태평양 미 육군 사령관을 대행하여 조선총독부와 조선 주둔 일본 육해군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1단계에 해당했다. 실제 24군단의 7사단 등은 구 일본군 인천항만경비부를 비롯한 인천육군조병창과 서울 전역을 점령하고, 용산기지를 주둔지로 지정했다. 이 작전에 참여한 부대의 규모는 지상군 48,524명, 지상지원부대 25,973명, 육군항공대 지원부대 2,418명이다. 1945년 8월 28일 맥아더는 야전명령 55호에 따라 24군단과 7사단을 15척의 강습상륙함과 1척의 강습화물수송함을 이용해 인천에 상륙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오키나와 남단에서 17수송전대와 21수송전대를 비롯해 호위구축함과 항공모함이 9월 5일 인천으로 출발했다. 9월 8일의 조선점령 상륙 함단에는 24군수지원사령부 장교와 사병을 포함해 500명 등의 대규모 부대를 승선시키고 있었다. 다음은 인천에 상륙한 각 수송단의 부대와 함선들이다.

제7사단 수송(TD 49, 59, 69)

강습상륙함 : 랜달(Randall), Bergen, 콜링스워스(Collingsworth), 크론쇼(Cronshaw), 벌리

슨(Burleason), 칠턴(Chilton), 버트(Butte), 르핑햄(Rffingham), 하노버(Hanover), 노블(Noble), 린(Lean), 아탈라(Attala), 코틀랜드(Cortland), 제네바(Geneva), 콜버트(Colbert)

강습수송함 : 애로투루스(Aroturus)

제24군단 직할대 수송

강습상륙함 : 시라[소]오타(Sara[s]ota), 오네이다(Oneida)

제24군수지원사령부 수송

강습상륙함 : 베컴(Beckham)

고속상륙함 : 링네스트(Ringnest)

제7상륙군 운송

상륙지휘선 : 캐톡틴(Catocin), 고속수송선 1척, 호위항공모함 1척, 호위구축함 10척

이 선단들은 9월 7일 오후 3시경 소월미도를 비롯한 여러 섬들을 지나서 9월 8일 월미도를 지나 인천항으로 들어왔다. 상륙작전이 기록된 보고서에는 “바닷물은 맑고 따뜻했으며 한 두 척의 작은 고깃배를 제외하면 항해 중인 선박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쓰고 있다.

17 인천 진주 중 미 해군이 공중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바다를 향해하는 배들이 확인된다. (1945.9.8.)



18 인천부청(현재의 인천 중구청) 전경 사진이다. 사진 왼쪽 하단에 'SIGNAL CORPS', 심볼, 'U.S. ARMY'가 들어간 도장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미군 123통신사진파견대에  
서 촬영한 것이다. 한편, 1945년 9월 11일 대구일일신문 기사에 따르면 미군의 인천 상륙 이후 인천부청 응접실에서 미일양국대표의 예비회담이 열렸다고 한다. (1945.9.8.)



19 미 해군 사병들이 연합군을 환영하기 위해 세운 구조물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에 유항렬주택이 보인다. 인천항 부근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1945.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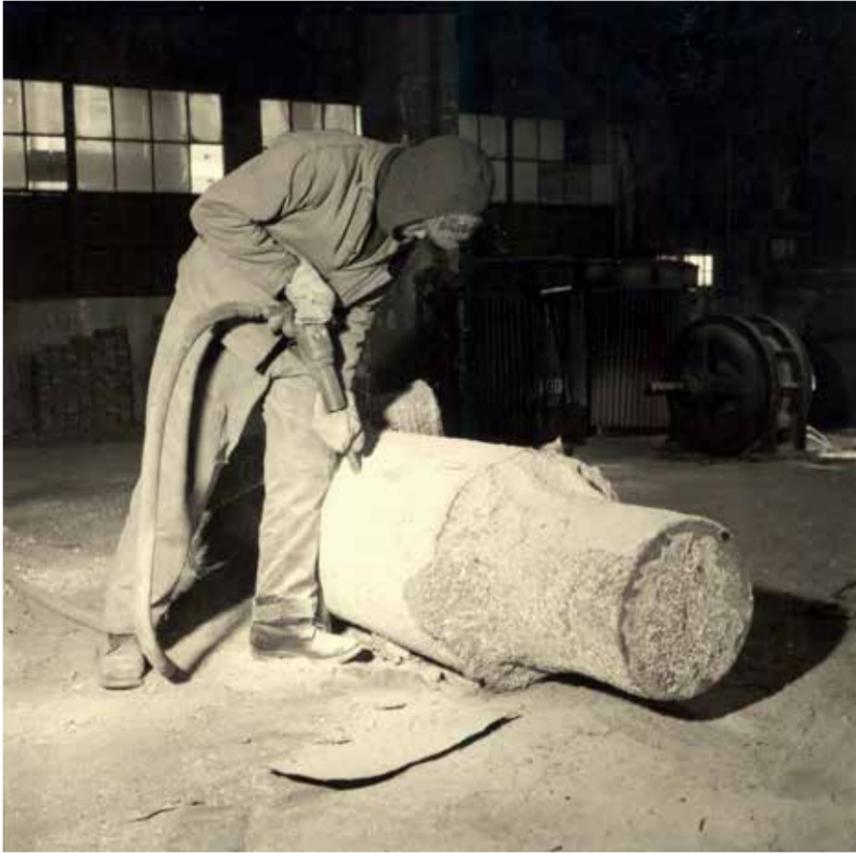


\*<참고> 미 해군 사병이 인천 진주 후 환영 벽보를 바라보고 있다. (RG 80, 1945.9.9)

20 1945년 9월 당시 인천의 주민들을 촬영한 사진이다. 주민들 뒤에 조선해륙운수주식회사 인천지점 건물이 확인된다. (1945.9.11.)



\*조선해륙운수주식회사  
1930년 설립된 조선운송주식회사가 1943년 사명을 개칭한 회사이다. 당시 조선 전역의 육운과 해운을 통합한 종합 물류 회사였다. 현재의 CJ대한통운의 전신이다.



**21 22** 만석동의 조선기계제작소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를 촬영한 사진이다. 원본 문서에서는 조선기계제작소가 삼화공장보다 설비가 좋다고 언급하고 있다. 문서의 삼화공장이 같은 시기 지금의 강원도 동해시에 있었던 삼화제철을 의미할 수 있으나 특정하기 어렵다. (1945.9.)



**23** 일제강점기 만석동의 조선기계제작소에서 제작했던 잠수정이 방치된 사진이다. 일부 쓰러진 잠수정도 확인된다. (1945.9.)



**24** 일제강점기 만석동의 조선기계제작소에서 제작했던 잠수정이 방치된 모습을 가까이서 촬영한 사진이다. 잠수정에 일장기가 그려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945.9.)



**25 26** 1945년 인천 조선기계제작소에서 미군이 촬영한 사진이다. 1937년 설립된 조선기계제작소는 광산용 기계를 제작하는 곳이었지만 중일전쟁이 장기화되자 군수시장으로 시 설확장을 추진했다. 이 종은 조선기계제작소에서 제강·압연하기 위해 수집한 스크랩 수집품의 하나이다.<sup>1</sup> 사진 속의 명문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大明國山東濟南府..”라 는 명문과 상단의 ‘佛日’ ‘增揮’라는 큰 글씨는 확인가능하다. 태평양전쟁기 일본 육군은 각종 병기를 생산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일제 점령지에서 다양한 금속품 을 약탈하였다. 일부 살아남은 중국 금속품들은 인천시립박물관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종은 현재 아라리오 뮤지엄 인 스페이스 건물 앞에 전시되어 있다.<sup>2</sup> (1945.9.)

<sup>1</sup> 사진과 함께 정리된 목록에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A huge cast-iron Chinese bell, part of the collection of scrap which series the Chosun Plant. The bell was left there by the Japanese when they departed Korea in 1945.”

<sup>2</sup> 해방 후 인천시립박물관에서는 미군정의 협조를 얻어 인천육군조병창에서 중국총 3정과 청동항로, 수형대포 등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살아남은 중국 금속 공예품을 다수 인수하였다. 시립박물관 외에도 전등사, 고려 대박물관, 육군박물관 등에도 당시 인수한 중국 금속품들이 소장되어 있다. 부평에 있는 일본육군조병창에서 해방후 인수된 중국제 금속공예품의 현황과 성격, 그리고 조선기계제작소에서 발견된 종의 현황에 대해서 는 신은미, 「인천육군조병창 발견 중국미술품 현황과 특징-출토지와 이동경로를 중심으로-」, 『조병창의 중국유물』, 인천시립박물관, 2022, pp.86~101 참고.



**27** 미 해군 선원이 인천 진주 후 한국인 주민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다. (1945.10.11.)

28 미 해군 인사에게 인사하는 노인(영문 설명에는 '나이든 일본인'이라 표기하나 국적을 특정하긴 어렵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다. 사진 오른쪽에는 '인천부향토관(仁川府郷土館)' 간판이 보인다. (1945.10.11.)



\* 인천부향토관  
 인천부향토관 건물은 개항 이후 세창양행 사택으로 불렸던 곳으로 일제강점기 인천 부가 건물을 매입하여 1922년 인천부립 도서관을 개관했다. 1941년 도서관이 울목동으로 이전한 뒤, 1946년 인천시립박물관이 개관하기 전까지 '인천부향토관'이라는 이름의 전시관으로 사용되었다.

29 미군 병사가 한국 진주 후 인천항에 정박된 일본 배를 바라보고 있다. (1945.10.11.)



인천 바다를 향해 고지대에서 찍은 사진이다. 바다에 정박한 선박은 미 해군 MINNEAPOLIS함이다. (1945.10.11.)



미 24군단의 한국 진주 후 일본군 잠수함을 조사 중인 미 해군 장교들을 찍은 사진이다. 조선기계제작소의 잠수함으로 추정된다. (1945.10.11.)



32 일제강점기 인천세관 감시과로 사용되던 건물을 촬영한 사진이다. 미군정 진주 후 외관에 붙었던 영어 문구가 아직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로 추정되는 총을 가진 3명이 건물 앞에 서 있다. (1945.11.20.)



이 사진은 미 육군사진과견대에서 일본경찰이 인천세관 감시소 앞에서 경비를 서고 있는 모습을 1945년 9월 촬영한 것이다. 사진 뒷면에 “일본경찰이 인천경찰서 앞에서 경비를 서고 있다”라고 적고 있다. “20 NOV 1945(1945년 11월 20일)”라고 적힌 날짜는 기밀이 해제된 날이다. 사진 뒷면 상단에는 “APS-45-5076”라 적혀 있는데 사진화보서비스(Army Pictorial Service)의 1945년 5,076번째 사진이라는 뜻이다.

이 세관 감시소는 미군 점령 이후 1945년 10월 12일 203항만수송통제중대, 1946년 10월 54수송지원단(54th Transportation Control Service Group, 한국기지사령부) 본부 사무실로 사용되었다.<sup>1</sup> 1949년에는 주한미군 수송감실 3중형항수송통제단의 사무실 등으로 이용되었다.<sup>2</sup> (내용 출처 : III-SC, Box 295, SC-213024)



<참고> 1950년경 촬영한 사진. 앞선 사진과 달리 “WELCOME TO INCHON”, “BEST ‘DAMN’ PORT IN THE PACIFIC(태평양에서 가장 멋진 항구)”라는 문구가 건물 외벽에 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소장)

1 RG 338, Unit Histories, 1943-1967, NAID 895216, UD 37042, Box 342, HQ US ASCOM gen order 1945-48, Archives II.

2 RG 554, General Correspondence Files, 1944-1949, NAID 595596, A1 1378, Box 148, AG 829 Incheon Harbor Navigation 1949, Archives II.



33

1:250,000 축척 인천 지역 지도이다. 미국이 일제강점기 일본 육군과 조선총독부가 제작한 지도를 영문으로 재편집한 것이다. 인천, 강화, 경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발음과 일본어 발음이 영문으로 병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천 부분에 월미도, 인천항 도크, 염전, 경인선 철도, 도로 등이 상세히 표기되어 있다. (1946.)



1946년 6월 5일 인천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국외에 있다 한국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모습이 찍혀 있다. 귀환자들에 대한 짐 검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946.6.5.)



1946년 6월 5일 인천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국외에 있다 한국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모습이 찍혀 있다. 귀환자들의 신체를 수색하고, DDT 살포, 조선은행 직원이 귀환자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1946.6.5.)

1946년 6월 5일 인천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국외에 있다 한국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모습이 찍혀 있다. 문서의 캡션에는 인천 송환 캠프를 언급하고 있어, 귀환자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46.6.5.)



이 사진에는 1946년 6월 5일 인천으로 귀환하는 조선인들이 인천송환수용소에서 질병통제와 물품, 몸 수색을 받는 모습이 담겨 있다. 재조선미군정청은 1945년 10월부터 각도장관의 협조 아래 일본, 중국 등지에서 귀환하는 조선인과 일본 국적 민간인들의 귀환·송환과 물품·질병통제 등을 담당했다.<sup>1</sup> 그러던 중 1946년 5월 28일 부산의 송환선에서 콜레라가 발병했다. 그러자 미군정청은 일본-부산 귀환 업무를 보던 곳을 기존의 부산에서 인천과 군산으로 변경했다. 이에 조선인 귀환자들은 인천항과 인천역에 마련된 귀환자수용소에서 몸수색과 물품 조사, 질병 유무, DDT 소독 등을 받았다. 9월 이후가 되자 일본에서 귀환하는 송환자들이 부산항을 통해 들어왔다. 인천송환수용소는 1948년 5월까지 중국에서 귀환하는 조선인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대로 유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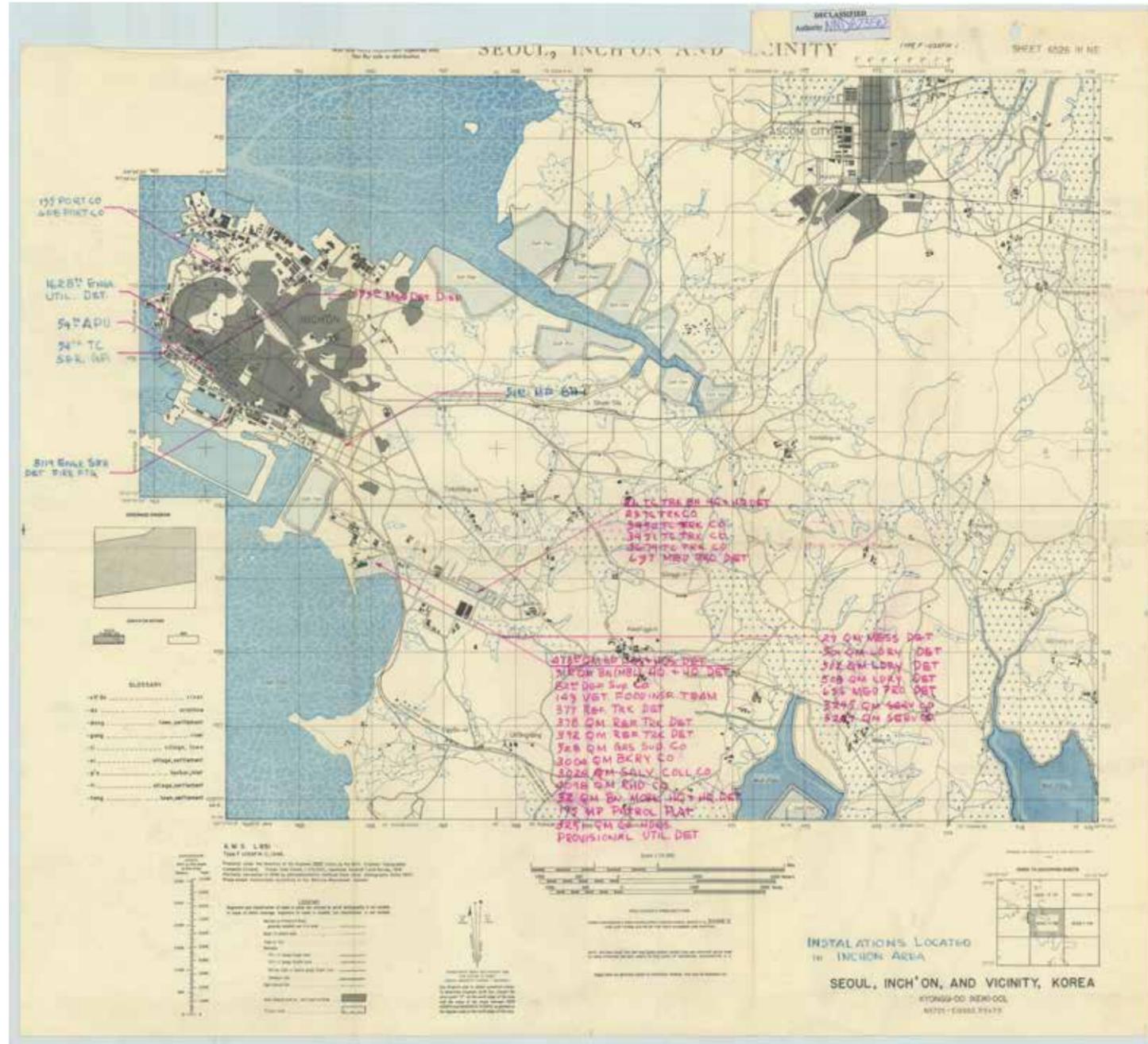
이 인천송환수용소의 운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조선미군정 외사과에서 발행한 『송환 1945년 9월 25일부터 1945년 12월 31일』을 참고할 수 있다. 책에는 재조선 일본군과 일본 국적 민간인, 일본·중국·대만 거주, 북한에 거주하던 남한 출신 조선인들의 송환(귀환)에 대한 구체적인 임무와 방법, 처리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

다. 1945년 9월 25일부터 미군정청 24군단의 24군수지원 사령부(에스컴 24)와 7사단은 인천, 이천, 개성, 웅진, 서울, 수원, 용산 지역 거주 일본인 민간인들의 송환 업무를 담당했다. 이 중 조선인들의 귀환 업무는 경기도 인천 시청 사회과와 조선구호위원회, 조선구호동맹, 인민원호회, 동포구호동맹 등 여러 민간구호기관에서도 담당했다. 1945년 11월 25일부터 귀환 조선인들은 현금 500엔에서 1000엔을 소지할 수 있었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역과 귀환에 대한 내용을 등록하고 송환수용소에 입소했다. 방역의 경우는 모든 귀환자들에게 옷과 신발, 몸 안까지 DDT를 뿌리는 것으로 실시했는데 194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인천의 조선인 귀환 업무는 1945년 12월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실시되는데 12월 초에는 하루에 481명을 처리했지만 12월 말에 매일 3,008명으로 처리 인원이 증가했다. 미군의 통계에 따르면 인천항에 들어온 조선인들은 총 145,705명이었다.

<sup>1</sup> RG 407, Records Pertaining to Foreign Occupied Territories, 1945-1960, NAID 7933777, NM3 368B, Box 2089, 10 Repatriation - Korea, 1945, Archives II.

1946년 10월 생산된 지도이다. 인천항을 비롯한 인천 지역에 당시 주둔한 미군 부대를 확인할 수 있다. (1946.10.)



이 지도는 1946년 10월 인천구역의 시설과 부대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지도는 <서울, 인천과 부근, 경기도>(SEOUL, INCHON and Vicinity, KYONGGI-DO)>(도엽 6526 III NE) 라는 제목을 단 25,000분의 1 지도이며, 미 육군지도국(Army Map S) 시리즈 L 851이다. 주한 미군 사령부(USAFIK) 69지형공병중대에서 1946년에 지도를 1차 편집했는데 원래 1914년 일본육지측량부에서 제작한 것을 1945년 항공사진과 맵핑한 것이다.

이 지도에서 오른쪽 상단의 애스컴 시티(ASCOM CITY) 부분이 경비행장(airstrip), 송수로, 애스컴 내부로 관통하는 철로와 도로, 건물 등을 상세히 표기하고 있다. 왼쪽 중앙에 위치한 131·608항만중대(131·608 Port Company), 1628공병시설과견대(1628th Engineer Utilities Detachment), 59군사우편대(59th Army Postal Unit), 54수송통제지원단(54th Transportation Control Service Group, 옛 인천세관 감시과 건물), (3119 Engineer Service Det Fire Fighting), 373의료과견대 진료소(373rd Medical Detachment, Dispensary), 51헌병대대(51th Military Police Battalion) 등은 지금의 인천항 1부두 일대이다.<sup>1</sup> 그 외 지도에 표시된 병참도시(Quartermaster City·QM City<sup>2</sup>)는 1946년 10월 인천 기지(Camp Incheon)의 H구역에 위치했는데, 여러 부대<sup>3</sup>들이 들어섰다. 이처럼 책에 수록된 지도는 미군정기 초기 인천지역의 항만과 철도 등지에 부대 배치 현황을 상세히 알 수 있다. 미

국은 1946년부터 인천항, 월미도, 영종도를 하나로 묶어 캠프 인천(camp incheon)이라고 명명했다.

한편 지도에는 인천기지-캠프 애스컴의 기본설계보고서가 첨부되었다. 이 보고서는 한국기지사령부(Korea Base Command·KBC)에서 인천 기지와 캠프 애스컴에 대한 총 필수 시설 및 기존 시설을 재구성한 내용이 담겨 있다. 1947년 7월 15일 재조선미군정은 시설 건설 프로그램에 대한 정기 보고서에서 기본정보지도, 기존 시설물 분석(육지·수역·건물·도로·유틸리티·신호통신·배수시설·급수), 향후 발전계획(토지이용계획, 토지 취득) 등을 다뤘다. 기본정보지도에는 <서울, 인천과 부근, 경기도>(도엽 6526 III NE)과 지역기지도(1:1,000,000), 지정경계 및 토지이용도(캠프 애스컴의 부대 위치·인천 1:6000 부대 제안프로젝트·QM City 26수송통제단과 송도 구역도), 일반 부지계획과 건물지도(캠프 애스컴 및 인천기지도·26수송통제단 숙소 계획·병참시 숙소계획·608과 608항만중대 및 1임시헌병대대·송도레크레이션호텔도·1병참창), 일반 도로도, 일반다용도 지도 등이 포함되었다. 이 인천기지-캠프 애스컴의 재배치와 발전 사업은 미군의 시설과 공익사업을 보여주는 인천의 단면도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시되었다.

향후 발전계획에서 인천기지와 캠프 애스컴은 육지와 급수구역, 건물, 도로, 다용도 시설, 통신신호와 배수 시설 등을 건설하는 것이다. KBC는 1947년 <서울, 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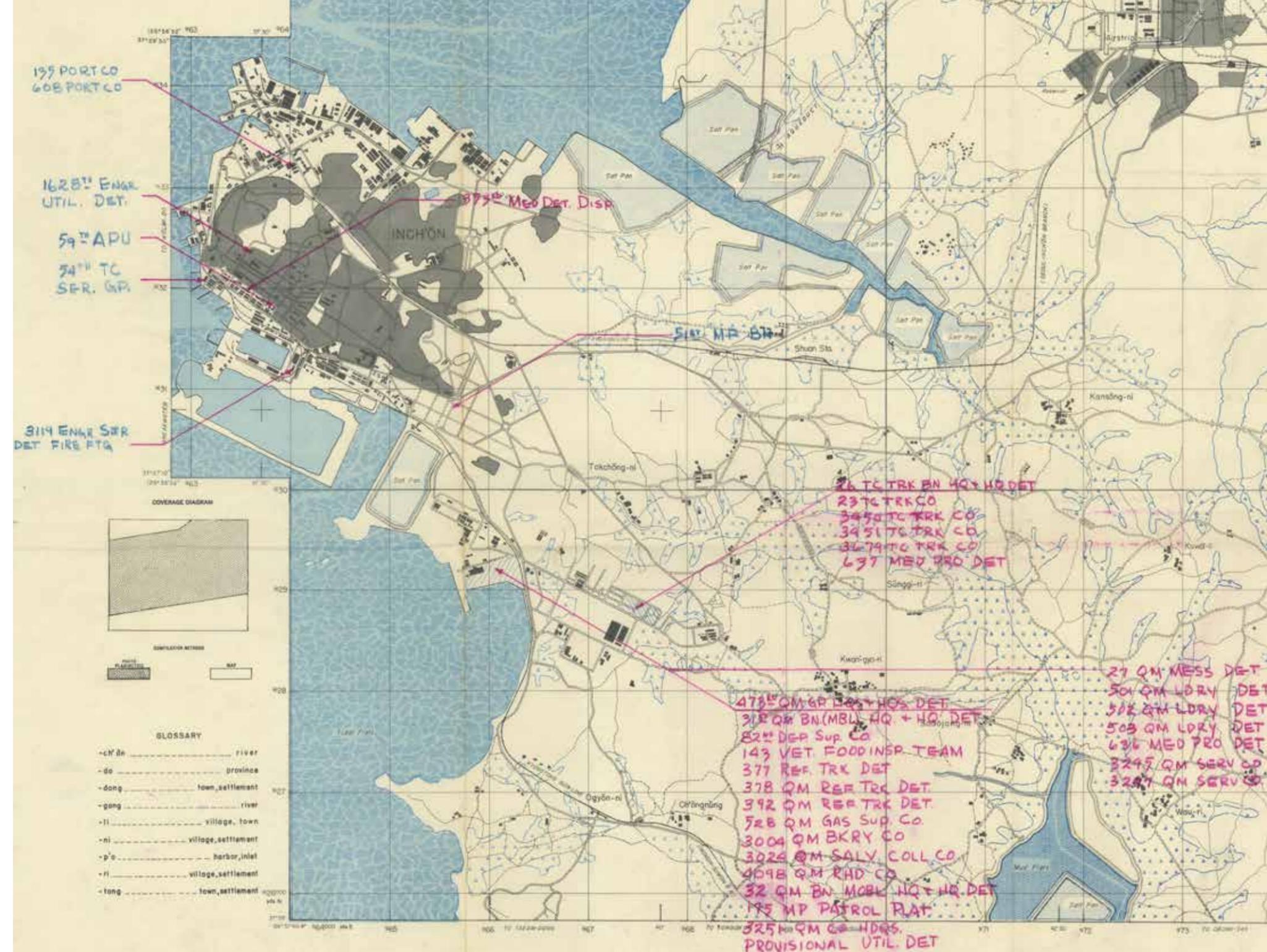
- 1 1946년 10월 해당 구역에는 26 트럭 수송 통제 대대 본부 & 본부 파견대(26 Transportation Control Truck Battalion HQ, HQ Detachment), 23·3450·3451·3679 트럭 수송 중대 (Transportation Truck Company), 3450 트럭 수송 통제 중대(3450th Transportation Control Truck Company), 3451 트럭 수송 중대(3451th Transportation Control Truck Company), 3679 트럭 수송 통제 중대(3679th Transportation Control Truck Company), 637 의료 전문 파견대 (637th medical Professional Detachment) 등이 들어섰다. 1955년이 되면 영 기지(Young Camp)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위치는 지금의 주인공원 부근이다.
- 2 1955년에는 에든버러 기지(Camp Edinburgh)로 명칭을 변경했다. 위치는 남인천역(지금의 송의역과 구 용현역 사이)이었다.

과 부근, 경기도> 지도에 표시된 부대의 재배치와 시설을 확충하는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를 실시하고자 했다. 기존 24군단은 가용 부대인 453개 부대의 필요한 전체 막사 및 숙소 건설 및 재배치, 월미도의 100개 부대를 영구 선정된 공간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KBC는 캠프 애스컴 소재 부평 일대와 인천 일대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일반 부지와 건물 계획에는 인천 종교실 2개 건물 건축, 급수시설 1개동, 주물 잠금장치, 병참창 투광조명등, 창고수리, 조수 독 수리 내용 등이 들어있었다. 1946년 10월 현 부지에 주둔한 인원은 장교 529명, 사병 8,696명, 전쟁부 민간인원 215명, 독립인원 202명이었다.<sup>4</sup>

이 지도와 문서에는 1945년 10월부터 1946년 10월, 1947년 7월 1일 인천 기지와 캠프 애스컴의 각 부대 위치와 부문별 부대명을 확인할 수 있다. 1947년 7월 1일 현재 인천 기지와 캠프 애스컴에는 공병대(인천 2개, 애스컴 4개), 의료부대(인천 1개, 애스컴 1개), 헌병(인천 5개, 애스컴 1개), 기타(인천 1개, 애스컴 3개), 통신(애스컴 1개), 수송(인천 10개, 애스컴 1개), 화학(애스컴 1개), 병참(인천 20개, 애스컴 8개) 등 총 59개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여기서 항만과 병참 본부 등을 포함하면 총 63개 미군부대가 인천과 부평에 주둔하고 있었다.

- 473 병참단 본부 & 본부 파견대 (473rd Quartermaster Group Headquarters&Headquarters Detachment), 31 병참대대(이동) 본부 & 본부 파견대 (31st Quartermaster Battalion(Mobile) Headquarters&Headquarters Detachment), 82 지원창 중대(82nd Depot Support Company), 143 수의식료 검사팀(143 Veterinary Food Inspection Team), 377 냉동트럭 파견대(377 Refrigerator Truck Detachment), 378 병참 냉동트럭 파견대(378 Quartermaster Refrigerator Truck Detachment), 392 병참 냉동트럭 파견대(392 Quartermaster Refrigerator Truck Detachment), 528 병참 가스지원 중대(528 Quartermaster GAS Support Company), 3004 병참 베이커리 중대(3004 Quartermaster Bakery Company), 3024 병참 레이더 수평거리 중대(3024 Quartermaster RHD Company), 3024 병참 구조 수집 중대(3024 Quartermaster Salvage Collection Company), 32 병참 이동대대 본부 & 본부 파견대(32 Quartermaster Battalion Mobile Headquarters&Headquarters Detachment), 3251 병참중대 본부(3251 Quartermaster Company Headquarters), 27 병참 식당 파견대(27 Quartermaster MESS Detachment), 501·502·503 세탁 병참 파견대(501·502·503 Quartermaster Laundry Detachment), 636 의료 전문 파견대(636 medical Professional Detachment), 3295·3297 병참 지원 중대(3295·3297 Quartermaster Service Company), 임시 다용도 파견대(Provisional Utility Detachment) 등

- RG 554, General Correspondence Files, 1944-1949, NAID 595596, A1 1378, Box 121, 600.12 Master Plan Report 1949, Archives II.



1946년 11월 생산된 항공사진이다. 부평의 인천육군조병창 구역 및 주변 지역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946.11.14.)



40 군정이 끝나 철수하는 미군을 촬영한 사진이다. 배경으로 항만사령부(일제강점기 당시 인천세관 감시과)로 사용되던 건물이 보인다. (1948.)



41 42 칭다오와 즈푸 등에서 피난온 중국인들이 월미도에 도착한 모습이다. 선상에서의 생활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1949.6.29.)





## Ⅱ. 자료 소개

### Part. 2

6.25전쟁 발발 ~ 인천상륙작전  
1950년 6월 ~ 1950년 9월 15일

## 6.25전쟁 발발 ~ 인천상륙작전

1950년 6월 ~ 1950년 9월 15일

### 전갑생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부는 1부와 달리 인천 도심과 사람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촬영 주체는 미 육해공군의 사진병들이다.

한국전쟁 개전 이후 북한인민군은 38선 전역에서 전면전을 개시해 수도 서울을 비롯한 인천, 수원, 대전 등 중요한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점령하고 대구와 부산 등지로 공격에 나섰다. 한국군과 미군 등 유엔군사령부(United Nation Command, UNC)는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육·해·공군의 모든 전력을 총동원해 “서울지역의 보급 시설 탈환과 남쪽에 주둔한 북한인민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자 크로마이트(Chromite) 작전에 나섰다. 이 작전은 인천-김포-서울, 군산-전주-대전-수원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상륙작전과 대구에서 출발해 중부내륙과 동부전선까지의 전쟁 초기 38선을 회복하는 게 목적이었다.

인천-서울 전선의 경우 1950년 9월 10일부터 미 해군, 해병대 항공단, 미 해병 1사단 소속 각 연대를 주축으로 월미도를 비롯한 인근 섬들을 탈환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월미도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을 대피시키지 않아 비

참한 희생자가 발생했다. 10군단의 예하 부대인 해병 1사단에 의해 이루어진 9월 10일부터의 월미도 폭격으로 월미도 주민 100여 명이 희생되었다. 해병대 항공단은 인천항만과 주거지역에 네이팜탄과 기총소사 공격을 실시했다. 폭격으로 인해 월미도의 전체 44개 건물 중 39개 건물이 파괴되었다. ‘거주 지역은 완전히 파괴되고 섬의 북쪽은 건물 80%가 큰 피해를 입었다.’<sup>1</sup> 이처럼 태평양함대사령부의 평가단이나 해병대의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민간인에 대한 사전 폭격 고지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와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

2부의 주요 자료는 지도, 항공 사진, 일반 사진으로 구성된다. 지도는 1950년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극동사령부 군사정보국에서 공중정찰부대의 항공사진을 분석해 월미도와 인천항 일대를 중심으로 북한인민군 방어체제와 무기 종류 등을 표기한 것이다(인천방어, 사진분석, 1950.9.1) 9월 17일에 작성된 인천의 도시지도(City Plan of INCHON, 1950. 9 상황지도, A-1호)는 9월 10일부터 15일까

지 상륙군의 진격로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이 지도는 그린 비치(Green Beach), 레드 비치(Red Beach), 옐로우 비치(Yellow Beach), 블루 비치(Blue Beach)에서 각각 서울로 진격하는 것을 정리한 것이다.

항공 사진은 1950년 7월, 8월 사이의 월미도와 인천항 일대를 극동공군 5공군 소속 3폭격단에서 촬영한 것이다. 7월 8일 3폭격단은 인천항과 조수독 일대에 대한 폭격 직후 항공사진을 촬영했는데, 고도 10,500피트에서 폭격하는 장면을 촬영했다. 항공 사진에서 조수독 일대 공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정찰업무 중 1950년 7월 29일과 8월 사이 5공군 소속의 8전술정찰대대(8 Tactical Reconnaissance Squadron, TRS)에서 수행한 임무의 요도(要圖)가 있다. 이 지도는 임무번호와 날짜, 정찰비행부대, 고도, 초점거리, 지도의 축적 등을 기재하고 비행기 궤적에 따라 항공사진 프레임의 번호를 표기했다.

한국전쟁시기 월미도 일대에서 포획된 북한인민군 포

로 사진도 포함되었다. 북한인민군은 1950년 6월 개전 이후 인천상륙작전 시기까지 줄곧 인천을 점령했다. 미해군 기동대와 해병1사단은 월미도와 인천항 일대 대공포와 23연대에 대한 기본 정보를 파악하고 작전을 준비했다. 9월 10일부터 해병대는 항공단과 해군의 함포지원 사격 이후 상륙작전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9월 15일 해병1사단 소속 연대들은 월미도에 상륙하고 벙커에서 피신한 북한인민군들을 색출했다. 9월 15-16일 사이 해병대는 북한인민군 약 500명 이상을 포획했다. 이때 해병대 사진부대에서 촬영한 북한인민군의 포로들 피사체들을 보면 상하의를 탈의한 상태였다. 이런 사진들은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본군 포로들을 처리하는 방식과 동일한 폭력적인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 해병대 사진의 특징은 월미도 뿐 아니라 인천시내나 근교에서 포획한 포로들의 모습에서도 동일한 장면이 있다는 것이다. 미해병대 병사들은 비무장 포로들에게 총으로 위협하거나 옷을 탈의시킨 채 행진하는 장면을 연출한다. 또한 부상당한 포로들을 들것

이 아닌 직접 이동시키는 모습도 많았다. 그래서 임시포로수용소인 인천 제1임시포로수용소(구 인천소년형무소)에 포로들이 도착하기 전에 사망한 사례가 많았다고 국제적십자사 파견대표 피에리가 제네바에 보내는 보고서에 자주 언급했다. 월미도 포로집결소에서 인천 제1임시포로수용소로 이동한 포로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 잠시 머물렀는데 이때 부상포로들이 제대로 진료받지 못하거나 열악한 환경으로 사망한 사례도 많았다. 특히 1951년 포로들이 인천임시포로수용소-거제도포로수용소로 이송될 때 인천항에서 상륙용주정(LST)을 타는 과정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전쟁초기 인천에 수용된 포로들은 미군으로부터 반인권적인 처리로 인해 이송과정에서 사망하는 등 여러 사건을 겪어야 했다.

또한 인천상륙작전의 대부분 사진들은 해군과 해병대에서 촬영한 사진들이다. 이 사진들은 작전 중에서 월미도 상륙과정, 월미도에서 포로들을 포획하는 장면, 인천항으로 상륙하는 장면과 소형 함정들이 정박하고 있는 장

면 등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해군과 해병대 사진들은 함정이나 해군이나 해병대의 무기, 병사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북한인민군들은 포획되는 장면과 이송하는 장면 등이며 간혹 포로들을 치료하는 모습 등으로 노출되었다.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사진은 미 육군과 해군에서 촬영한 것이다. 촬영부대는 226통신사진중대와 해군, 해병대 사진영상중대 등이다. 주요한 사진들은 인천상륙작전 중 사령부 지휘부들의 모습이나 월미도, 인천 일대의 전투 모습으로 구성되었다.<sup>2</sup>미 육군 통신대의 경우 소속 2명의 사진 및 영상병은 상륙작전 때부터 함선에서 줄곧 머물다가 9월 15일 월미도와 인천으로 상륙했다. 사진병 댄젤과 영상병 포스너트(35mm 아이모)가 대부분의 인천상륙작전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다. 두 사람의 사진은 RG 111(미 통신대) SC(1745-1954) 시리즈에 들어 있다. RG 127(해병대)는 GR, GK(1950-58) 두 시리즈이며, GK에 인천상륙작전 사진들이 대개 정리되어 있다. RG 80(미 해

군)의 G 시리즈는 해군에서 촬영한 것이며 해군 기동대의 활동으로 인천항과 주변 섬들 사진들로 구성되어 있다. RG 306(USIA)의 PS 시리즈는 주로 언론에 홍보하고자 선별된 사진들이다.

이 시기 사진의 특징은 맥아더를 중심으로 한 영웅화와 해병대와 육군에서 ‘성공적인’ 상륙작전을 보여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미군의 보고서에서 전투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의 피해를 ‘부수적인 피해(Collateral damage)’ 라고 규정했다. 또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민간인 사상자는 피할 수 없다(Civilian casualties are not inevitable)’고 언급한다.

- 1 관련해서 극동공군 5공군은 네이팜탄 효과에 대해 “근접 공중지원 임무를 위한 무장의 50%는 네이팜이어야 한다.”고 평가하며, 인적·물적 피해를 가져 온 네이팜탄 확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 2 이때 미 육군 통신대 소속 2명의 사진병과 미 해병대 소속 사진병이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 각각 다른 시각으로 촬영했다.



43 6.25 전쟁 초기인 1950년 7월에 제작된 1:13,000 축척 지도이다. 항공 사진을 기반으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월미도, 인천항 도크, 경인선 철도, 도로 등이 확인된다. (1950.7.)

블루 비치(청색 해안)를 찍은 사진이다. 현재의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상륙 지점 표시석이 있다. (1950.7.)



그린 비치(녹색 해안)를 찍은 사진이다. 현재의 인천 중구 월미도이다. 배를 접안할 수 있는 구역을 화살표로 따로 표시해놓았다. (1950.7.)



엘로우 에어리어(원 자료의 설명, 황색 해안)와 그린 비치(녹색 해안)를 하나의 사진으로 촬영한 모습이다. 황색 해안은 현재의 인천 내항으로 당시 병참 물자의 하역 지역이었다. 녹색 해안은 현재의 월미도인데, 사진에 배를 접안할 수 있는 구역을 화살표로 따로 표시해놓은 것을 알 수 있다. (1950.7.)



1950년 7월 당시의 인천항 전체 모습이다. (1950.7.)





48 1950년 7월 8일에 촬영된 인천 폭격 사진이다. 사진에서 확인되는 구름 같은 것은 폭발로 인한 연기로 인천상륙작전 이전에 인천 시내 폭격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50.7.8.)



49 1950년 8월 8일에 촬영된 인천 폭격 사진이다. 앞선 사진처럼 폭발로 인한 연기가 확인되며, 인천상륙작전 이전에 인천 시내 폭격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의 중간 부분에 땅에 포탄이 떨어져 폭발하는 모습이 보인다. (1950.8.8.)

6.25전쟁이 발발하고 1950년 7월 8일 3폭격전단은 1950년 7월 8일과 8월 8일(임무번호 3-295) 두 차례 인천항의 항만시설(37.28N, 126.28E, 37.28N, 126.28E)을 폭격했다. 이 폭격은 3폭격단의 B-26 폭격기가 고도 10,000~10,500피트에서 진행되었고, 폭격전후 장면이 촬영되었다. 책에 수록된 사진은 본격적인 상륙작전 이전에 공장지대를 폭격하는 장면을 그대로 담고 있다.

미 극동공군은 6.25전쟁 초기 전략폭격사령부와 5공군에 명령하여 북한 주요 도시와 남한 내 북한인민군의 점령지의 대공포나 탱크 같은 무기, 부대 주둔지, 철교나 도로를 중심으로 폭격하는 전략폭격 전술을 실시했다. 전략폭격은 공군과 해군 소속의 해병항공단 대형 폭격기 B-29·26 외에도 보우트 F4U 콜세어나 F-80·81 같은 제트기에 의해서도 실시되었다. 이러한 폭격기나 제트기에 의한 작전은 지상 부대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근접지원이었다. 근접지원작전은 대도시의 민간인 밀집지역에서 계속되었다. 인천의 경우 7월 8일과 8월 8일 폭격만 놓고 보면 대공장에 한정하는 전략폭격이었다. 그러나 폭격기사령부는 9월 10일부터 22일 사이에 월미도와 인천 시내에 집중 폭격하는 융단폭격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1 RG 242, Korean-Language Records Captured at Incheon, 5, 1953 - 1, 1958, NAID 6882381, NM-44 299L, Box 768, SA 2009: 7/80 THRU SA 2009: 7/99, Item #81 제3보령 인천항 방어전투 문건(제3보령 참모부), Archives II.  
2 General CIA Records, DEFENSES OF INCHON AND HARBOR, AND ISLAND IN THE VICINITY 2. LOCATION OF NORTH KOREAN TROOPS, August 4, 1950, CIA.

7월 8일 인천항 폭격의 배경을 살펴 보면 북한 인민군이 인천을 점령하고, 천안에서 전투를 벌이면서 계속 대전으로 남하하고 있던 시기였다. 당시 북한 인민군은 월미도와 인천항 일대에 23보병연대 1대대 중 박격포 1개 중대와 대공포, 고사기 관총 등을 배치했다.<sup>1</sup> 항구에는 3개 대대, 포병, 기동예비대, 반전차 예비대 등에 인원을 배치했다. 섬 중에는 팔미도, 월미도, 소월미도, 강화도 등에 부대를 배치했다. 같은 시기 CIA 정보보고서에 따르면 1950년 7월 9일 월미도에 북한 인민군은 해군 3,000명을 주둔시켰다고 한다.<sup>2</sup> 그러나 인천 상륙작전 직전 정보참모부에선 월미도에 500명의 인민군과 500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파악하였다.<sup>3</sup>

이에 따라 미 공군은 인천항 일대의 군수공장과 항만시설에 북한군이 주둔한 것을 감지하고 폭격한 것으로 보인다. 미 극동사령부 보도자료 중 1950년 7월 7일 17시 14분부터 7월 8일 14시 55분의 미 극동공군 5공군 작전 내용을 보면, 이날 B-26 폭격기는 야간 임무에 투입되어 인천 동쪽 끝에 있는 지상 목표물을 향해 로켓과 네이팜 폭탄을 투하했다.<sup>4</sup> 8월 8일에는 B-26이 인천항 일대에 500파운드 폭탄을 투하해 부두 인근 공장들까지 피해를 입혔다.<sup>5</sup>

3 8월 28일 작전명령 1호에서 10군단은 주요 기동부대의 조직과 공격지역, 첩보계획 등을 수립했다. 첩보계획은 인천-서울 구역의 항공사진 및 지도를 지원받아 목표물을 선정했는데 월미도 및 인천항을 비롯해 인천역과 주변 시가지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작전 임무는 인천에 상륙해 김포 비행장과 서울구역을 탈환하는 것이었다. 작전구역 내 북한인민군 분포현황은 7월 25일 첩보에 따르면 인천 1,000명과 김포 500명, 서울 5,000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었다.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taff Studies and Intelligence Estimates, 1948 - 1951, NAID 1147992, A1 48, Box 5 ; Commander Amphibious Group One and Commander Attack Force(CTF 90), Operation Order No. 14-50, 1950, Box 6, RG 554, Archives II).  
4 RG 319, Korean War Communiques and Press Releases, 12, 1950 - 12, 1951, NAID 7384852, A1 50, Box 1, July 1950, Archives II.  
5 RG 319, NM-399-A, Box 848, Deputy Chief of Staff for Operations, Far East and Pacific Branch, Korean Message File, CINCFE SITREPS for Aug 1950, Archives II.